

아동·청소년대상 해외 성매매 실태에 관한 토론회

- ▶ 일 시 : 2006.12. 7(목) 10:00-12:00
- ▶ 장 소 : 국회 현정기념관 103호
- ▶ 공동주최 :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사)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 위원장 인사말씀	1
♡ 발표자 및 토론자	3
♡ 진행순서	3
♡ 발 표 문	5
○ 김 경 애(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이사장)	7
○ 카멜리타 I. 펠론(필리핀 사회복지사)	77
♡ 토 론 문	85
○ 김 영 숙(국회의원:한나라당)	87
○ 유 승 희(국회의원:열린우리당)	92
○ 전 혁 희(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보호단장)	97



안녕하십니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문희 의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곳 여의도 국회까지 찾아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오늘 사단법인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와 공동으로 <아동, 청소년대상 해외 성매매 실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토론회는 작년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인에 의한 성구매 문제에 대한 보도들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해외 성매매 실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해외 성매매 근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생한 현지 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주실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김경애 이사장님과 멀리 필리핀에서 본 토론회를 위해 와 주신 필리핀 사회복지사 카멜리타 I. 펠론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기꺼이 사회를 맡아주신 열린우리당의 흥미영 의원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 주신 한나라당의 김영숙 의원님, 열린우리당의 유승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전혁희 단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최근 한국의 무역 규모가 세계 11위를 차지하고, 불과 2년만에 수출이 2,000억불에서 3,000억불을 넘어서는 세계적인 기록을 달성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성의 지위는 이러한 성장 수치와는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왔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가 발표한 한국의 남녀평등 수준은

세계 92위로 최하위권이고, 2006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 보고서>에서 나타난 한국의 전문·기술직 여성비율과 남녀 소득비율은 작년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매매에 관한 한 한국은 국제 사회에서 이미 성매매의 송출지, 경유지, 귀착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나아가 본 토론회 자료에서 나타난 것처럼, 한국이 아시아지역의 대표적인 성구매자 국가로 인식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매매의 대상이 되는 아시아 지역의 여성들은 대부분이 가난한 10대 여아들입니다. 성매매가 여성 인권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우리는 그 간의 성매매 방지 사업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10대 아동과 여성들이 적어도 한국인으로 인해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성매매 방지를 위하여 시민단체와 정부, 학계와 국회 모두 국내외적 연대를 적극 가동하고 예방, 수사, 처벌에 있어 국제공조를 실천에 옮기는 등 성구매와 성적 인신매매조직이 더 이상 활개칠 수 없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도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무엇보다도 해외 성매매 방지대책을 본격적으로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인사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2월 7일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문 희

☞ 발표자 및 토론자

(가나다 순)

발 표 자	직 책
김 경 애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이사장
카멜리타 I. 펠론	필리핀 사회복지사
토 론 자	직 책
김 영 숙	국회의원(한나라당)
유 승 희	국회의원(열린우리당)
전 혁 희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보호단장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10:00	개 회
10:00~10:10	위원장 인사 및 발표(토론)자 소개
10:10~11:40	발표 및 지정 토론
11:40~	질의 · 답변

발 표 문

- ❖ 김경애(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이사장)..... 7
- ❖ 카멜리타 I.펠론(필리핀 사회복지사) 77

김 경 애(청소년을 위한 내일 여성 센터 이사장)

『아동·청소년 대상 해외성매매 실태(필리핀, 태국을 중심으로)*』

I. 서 론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은 더 이상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기업가 정신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기업인과 기업체 직원들이 해외로 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노동자들과 선원들이 중동 건설 참여, 또는 원양어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대거 해외로 나갔다. 이들이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 많은 고난을 무릅 쓰고 해외로 진출하면서 일반인들의 해외여행이 늘어났다.

정부가 해외여행 자유화 정책을 채택하면서 일반인의 해외여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해외에서 지식을 익히려고 떠나는 유학 및 어학연수, 그리고 국민소득 증대와 환율 하락 등으로 인한 비용감소로 해외에서 여가를 즐기려는 관광여행이 급증하고 있다. 일반인의 단체 관광은 물론, 효도관광여행, 배낭여행, 졸업여행 등을 해외로 그 행선지로 하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다.

그러나 해외여행이 기본적으로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자연 경관을 감상하는 건강한 여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행 중에 불건전한 성매매를 자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이미지를 실추하는 사실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된 바 있다¹⁾. 특히 2004년 성매매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성매매가 범죄라는 사실이 국민들 사이에 분명히 인식되면서 국내의 집창촌을 중심으로 행해졌던 성매매가 사그러 들었고 이에 따라 소위 ‘풍선효과’에 의해서 해외에서 우리나라

* 본 조사는 (사)청소년을 위한 내일 여성 센터(ECPAT Korea)가 국가청소년위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실시되었음.

1) 성매매가 없었던 남태평양의 인구 8만의 키리바시에 우리나라 원양어선 선원들이 성매매를 자행하여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을 ‘꼬레 꼬레아’로 불려진다는 것이 2004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동성매매 및 포르노 방지를 위한 국제회의 발표되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남성의 성매매가 문제시되었다.

남성들의 성매매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해외 성매매 문제에 대해 국민 63.2%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²⁾

그동안 우리나라 남성들은 흔히 성매매는 그리 큰 문제될 것이 없는 성인이 되어가는 통과 의례로 이해되었거나, 여흥, 접대 문화의 일부분으로 생각하였으나,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으나 해외 관광, 특히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보다 뒤떨어진 나라에 여행하는 경우, 현지 여성들과의 성매매는 남성관광객의 경우 당연한 코스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수많은 우리나라 관광객이 드나드는 중국과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의 성매매 관광(Sex Tourism)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2005년 10월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가 개최한 국제 심포지움³⁾을 통해서 캄보디아, 필리핀에서의 우리 남성들에 의한 성매매의 실상이 조금 알려져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관광객이나 어학 연수 및 유학생으로 현지를 방문하거나 체류할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가이드로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어학원이나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지에서 성매매와 관련한 실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는 성매매문제에서 성매매 여성이나 포주들에 의한 착취 구조 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성매수자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일부 요인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관광’이라는 명목으로 현지 아동과 여성에게 자행되고 있는 상업적 성 착취(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범죄로, 아시아 지역에서 성매수자로서 우리나라 남성들에 의한 성매매관광(Sex Tourism) 문제가 국제 사회에서 문제시되기 시작하였으며 해외여행이 늘어나는 만큼 해외에서의 성매매문제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 남성이 8세에서 16세 사이의 필리핀 소녀 71명을 데리고 포르노 속을 열고 영업을 하는 것이 2005년 7월 한 미국인의 추적에 의해 발각되어 필리핀 사회에서 크게 문제가 된 바도 있었다. 세부에서는 가장 큰 나이트클럽을 한국인이 경영하면서 한국성매매 여성들이 한국인들을

2) 성매매방지법 시행2주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 NI코리아(M&C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남녀 1,5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도 성문화, 성의식 국민의식조사.

3) 한국남성의 아동, 청소년대상 해외성매매 관광실태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상대로 스트립쇼 등 음란 행위를 자행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되어 폐쇄된 바 있었다고 하였다.⁴⁾ 우리나라 남성에 의한 여행국가의 현지인, 특히 미성년자에 대해 자행되는 성착취는 범죄로 인식되고 근절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 국무성이 발표한 성매매 인권에 관한 보고서에 일등급 국가로 분류되었으나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남성들에 의한 성매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에서 성매수와 상대 성매매여성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우리나라 남성들의 해외에서의 성매수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식을 높이고 또한 정부가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국가 이미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어 장기적으로 전반적인 국익에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성매매와 같은 아동·여성 인권 문제는 국제 사회의 중요한 아젠다로서 한국 정부는 책임성 있는 자세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동남아시아 지역인 태국과 필리핀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남성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현지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하며, 더 나아가 정부 및 NGO차원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조사 방법을 설명하였는데, 조사 대상국가로 태국과 필리핀을 선정하게 된 경위와 현지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의 방법을 기술하였다. 3장에서는 조사대상국가인 태국과 필리핀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태국과 필리핀 내에서 조사지역으로 선정된 태국의 파타야, 필리핀의 마닐라와 세부에 대한 관광 산업에 대해 기술하였다.

4장에서는 파타야, 마닐라, 세부 지역에서 우리나라 남성들과 성매매 경험 있는 아동, 청소년(미성년) 여성과 미성년시기부터 성매매에 종사해 온 성매매 여성들의 실태를 기술하였다. 마닐라지역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남자 성매매자에 대한 실태도 포함하였다. 이어 5장에서는 성매매여성들이 말하는 우리나라 남성들의 성매수 행태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제6장은 결론으로 조사 내용을 요약하고 평가하였으며, 나아가 앞으로 정부와 NGO가 해외에서 성매매 근절을 위해 해야 할 대책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4) 세부에서 공항 면세점에 필리핀인의 출입을 금지하여 세부시장 부인이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 그 가게가 폐쇄되었는데, 세부 지역에서는 한국인에 의한 횡포의 한 사례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II. 조사 방법

1. 조사대상국의 선정

우리나라 국민들의 해외여행 수요는 1998년 이후 급속히 성장하여 1999년부터 매년 약 100만 명꼴로 증가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2003년에는 이라크 전쟁과 조류독감의 영향으로 해외여행 심리가 위축되었으나 2004년과 2005년에 이어 현재까지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표 2-1>. 주 40시간 근무제도 확산 및 원화 강세, 해외어학연수의 확대 등의 이유로 많은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하고 있다.

<표 2-1> 연도별 국민 해외여행 증가추세

연도별 국민 해외여행 증가추세			
연도	출국자(명)	성장률(%)	해외관광여행 허용연령 확대단계
1986↓	454,974↓	-6.0↓	
1987↓	510,538↓	12.2↓	
1988↓	725,176↓	42.0↓	
1989↓	1,213,112↓	67.3↓	
1990↓	1,560,923↓	28.7↓	
1991↓	1,856,018↓	18.9↓	
1992↓	2,043,299↓	10.1↓	
1993↓	2,419,930↓	18.4↓	
1994↓	3,154,326↓	30.3↓	50 세 이상('80. 1. 1)↓
1995↓	3,818,740↓	21.1↓	45 세 이상('87. 9. 16)↓
1996↓	4,649,251↓	21.7↓	40 세 이상('88. 1. 1)↓
1997↓	4,542,159↓	-2.3↓	30 세 이상('88. 7. 1)↓
1998↓	3,066,926↓	-32.5↓	연령제한 폐지('89. 1. 1) ↓
1999↓	4,341,546↓	41.6↓	
2000↓	5,508,242↓	26.9↓	
2001↓	6,084,476↓	10.5↓	
2002↓	7,123,407↓	17.1↓	
2003↑	7,086,323↑	-0.5↑	
2004↑	8,825,585↑	24.5↑	
2005↑	10,077,619↑	14.2↑	

<출처>한국관광공사 관광통계 자료 참조..

최근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국가별 출국현황을 보면<표 2-2> 제1의 여행 행선지는 중국으로 출국자 수는 146만 명이며, 태국과 필리핀 또한 각각 44만 명과 26만 명으로 각각 3위와 5위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나라가 우리나라 해외여행객에게 인기 있는 여행 행선지로 부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2>.

그런데 <표 2-3>를 통해 최근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목적별 출국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행한 상위권을 차지하는 나라에서 관광의 비율이 미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50%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특히 태국과 필리핀의 경우는 관광 목적이 각각 86.7%, 80.3%로 절대 다수의 비율을 차지하여 해외 여행지의 1, 2,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일본, 미국<표 2-2> 보다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여행객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나라로 볼 때는 필리핀이 해외여행객 순위에서 미국을 제치고 4위를 차지한다.

<표 2-2> 2006년 1-6월 목적별·행선지별 내국인 출국

순위	행선지	계	관광	상용	방문·시찰	공용	회의·참가	기타
1	중국	1,466,236	811,564	447,965	140,170	1,422	3,316	61,799
2	일본	1,003,587	653,405	169,249	108,215	1,502	7,018	64,198
3	태국	443,604	384,494	23,157	28,064	218	971	6,700
4	미국	339,238	134,794	70,224	72,179	2,596	7,856	51,589
5	필리핀	258,832	207,854	15,542	22,859	258	419	11,900
6	홍콩	185,833	116,410	48,648	15,175	180	794	4,626
7	베트남	164,428	121,155	25,156	14,793	317	377	2,630
8	싱가포르	119,088	82,395	19,055	11,757	220	751	4,910
9	호주	99,191	65,994	5,419	10,894	228	475	16,181

<출처> 한국관광공사 관광통계 자료 참조

<표 2-3> 각국별 관광을 목적으로 출국 비율 (2006년 1~6월 기준)

(단위: 수 / %)

순위	행선지	계	관광	비율
1	태국	443,604	384,494	86.70%
2	필리핀	258,832	207,854	80.30%
3	베트남	164,428	121,155	73.70%
4	싱가포르	119,088	82,395	69.20%
5	호주	99,191	65,994	66.50%
6	일본	1,003,587	653,405	65.10%
7	홍콩	185,833	116,410	62.60%
8	중국	1,466,236	811,564	55.40%
9	미국	339,238	134,794	39.70%

태국은 한국과 오랜 우방 관계를 지속해 온 나라로서 1959년에 정식으로 양국간에 외교관계가 성립된 이후 1981년 양국간 사증면제협정 체결로 관광을 목적으로 태국에 입국하는 경우 비자 없이 90일간 태국에 체류할 수 있다.

올 상반기중 550여만명이 출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행선지별 내국인 출국 통계가 잡히는 올 1~5월 기간중 우리나라 관광객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태국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9% 급증했다. 5)

이러한 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인들에게 대표적인 관광목적여행지로 꼽히는 태국(방콕, 파타야, 푸켓)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싼 가격, 풍부한 즐길 거리 등에서 관광과 휴양을 모두 즐기려는 이들이 선호하는 여행지로서 신혼부부들의 허니문, 가족여행, 스파·마사지관광, 중년남성들의 골프여행지로 그 관광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5) 문화일보 2006.7.28 김병직기자 「상반기 550만명 해외로… 6조 1700억원 빠져나갔다」

국내 대표적인 온오프라인 여행사 7곳(하나투어, 자유투어, 세방여행사, 가야여행사, 호도투어, 웹투어, 투어익스프레스) 국외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 한 설문조사에서도 6명이 동남아를 '한국인이 가장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여행지'로 꼽았다. 특히 동남아 지역은 여행목적(신혼여행 골프여행) 계절별(여름 겨울) 등 여러 항목에서 두루 1위를 차지했는데 동남아에서도 태국과 필리핀이 가장 두드러졌다. 지난해 한국인 행선지별 출국자 수에서 66만 1,700여 명으로 6위를 차지했던 태국은 출국자 중 85%인 56만 5,700여 명이 관광목적이었다. 즉, 태국 방문객 100명당 85명이 관광객인 셈이다. 필리핀 역시 전체 출국자(48만 1300여 명) 중 81% 이상이 관광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⁶⁾

태국여행의 새로운 관광목적으로 등장한 골프관광은 국내에서의 골프부킹난, 높은 입장료 등으로 해외로 원정골프를 며나는 골퍼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서 국내 골퍼들이 많이 가는 중국, 태국, 필리핀 등 3개국의 출국자수를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 국가별 골프관광객(2006년)수는 태국 9만 2천명, 필리핀 5만 5천명으로 조사되었다.⁷⁾

요약하면, 태국과 필리핀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관광을 위해서 세 번째, 다섯 번째로 많이 찾는 나라이며, 이 두 나라를 방문하는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광 목적 이외에도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이 필리핀에 입국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2000-2005년 유학 목적지별 출국 통계를 살펴보면서 대강의 추이를 알 수 있는데,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유학의 형태보다는 기간이 짧은 연수 형태가 더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고, 필리핀 내 인기 있는 영어연수지 한 곳에만 2천명의 한국 유학생들이 있다고 YTN이 보도한 바 있다. 세부 지역의 쉼터 관장인 사회사업가에 의하면 지난 2년간 한국인들의 유입이 갑자기 현저하게 늘어났는데, 한국인들은 관광객과 어학 연수생뿐만 아니라 유통업소, 가게, 차 관련 사업, 어학 연수원 등의 사업하는 사람들이 현격하게 늘어났다고 한다.

6) 매일경제 2006.2.8. 박준모기자 「해외여행 천만명시대 하루 2만7천명 '해외로'」

7) 한국레저산업연구소 <http://www.kolec.co.kr/> 해외골프 관광객수 추계

<표 2-4> 2000-2005년 유학 목적지별 출국

국가명	유학						연수						단위 :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미국	38,291	40,648	46,691	52,447	56,724	62,396	25,311	21,917	21,546	20,230	20,467	21,947
중국	13,641	17,242	27,723	35,845	39,279	49,673	18,756	23,932	41,960	28,930	48,978	60,276	
일본	29,723	31,429	34,459	34,516	34,020	34,895	34,299	32,785	35,470	38,012	41,603	44,079	
캐나다	7,826	10,491	13,800	16,097	16,812	17,343	10,798	11,962	13,762	11,936	13,107	12,928	
호주	5,649	6,219	7,174	8,991	9,599	11,469	6,700	8,777	10,105	12,309	12,309	13,685	
영국	5,764	6,366	7,652	8,421	8,573	8,804	6,468	6,831	8,903	8,688	8,917	8,800	
독일	3,776	3,957	4,725	5,021	4,875	4,576	3,138	4,311	5,687	5,370	6,585	5,759	
뉴질랜드	1,492	2,371	3,939	4,960	4,850	4,341	2,548	4,038	5,754	4,630	5,240	4,593	
필리핀	1,579	1,573	1,800	2,015	2,502	3,191	3,477	4,280	5,240	4,743	6,769	10,077	

<출처> 한국관광공사 연간통계 자료 참조

필리핀 관광사이트에는 필리핀의 기후 물가 사회와 정치까지 기초정보와 더불어 유학생을 위한 대학정보 영어연수는 물론 결혼, 이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한 귀퉁이에 '여행의 동반자, 에스코트 걸'이라는 제목으로 '섹스관광'을 알선하는 소개란이 따로 마련돼 있다.⁸⁾ 이러한 사이트들은 여행객과 유학생들을 상대로 필리핀 체류 중에 함께 할 섹스 파트너로서 현지처의 역할을 할 성매매여성들을 알선하고 있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남성에 의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에 대한 조사로, 두 번째로 많은 국민들이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사람에 의한 일본 미성년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제외하였다.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 관광객에 의한 성매수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으나 관광지역이 광범위하고 상대 국가인 중국의 NGO의 협력을 얻기가 불가능하여, 조사 실시가 매우 어려워 사전 조사를 철저히 시행한 후 실시하도록 다음 기회로 미루었다.

결국 태국과 필리핀을 조사 대상국가로 선정하였는데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 국민이 세 번째, 네 번째로 관광행선지로 선호하고 있는 국가이며, 특히

8)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Break News(<http://www.breaknews.com>) [단독확인]관광사이트 위장 성매매 알선?, 2006.9 소미연 기자

필리핀의 경우 국제 연대를 통해 ECPAT 필리핀의 협조를 얻을 수 있어 조사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었다.

2. 조사 방법

가. 태국

8월27일 30일까지 4일간 파타야지역을 방문하여 20명의 미성년자와 미성년 때부터 성매매한 여성들 인터뷰하였고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관찰하였다. 또한 현지 한국인 여행 가이드와 태국인 다큐멘타리 프로듀서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였다.

성매매여성과의 접촉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업소를 직접 찾아가서 면담 요청을 한 경우이다. 파타야에서 가장 큰 바디마사지 업소와 스트립 공연을 하는 바, 술 만 파는 바 등에 가서 웨이터와 주인에게 미성년 성매매 여성은 소개해달라고 하는 방법이었다. 현지 관광 가이드가 자신이 안내할 관광객을 위해서 조사하러 온 것처럼 가장하여 유흥업소 문에서 지키고 있는 남자에게 접근하여 업소 내로 들어갔다. 유흥업소는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광객을 유인해야하는데, 관광 가이드들이 관광객을 유흥 업소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 유흥업소의 수입이 관광 가이드에 달려 있어 유흥업소들은 가이드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 유흥업소에 접근할 때 가이드가 조사(inspection)나왔다고 하면 친절하고 비용 없이 관찰을 허용하였다.

스트립쇼를 하는 바에서는 미성년 여성은 소개받았으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였고, 바디 마시지 업소에 종사하는 가장 나이 어린 여성 한명이 인터뷰에 응하여 유리창 너머로 계단에 앉아 있는 여자 중에 한명이 홀로 내려와 인터뷰하였다(사례1). 이 여성은 인터뷰 중 방송국에서 오지 않았는지, 몰래 카메라 있지 않은지, 경찰이 아닌지 계속 물어보았고, 인터뷰가 끝난 날 새벽에 태국인 다큐멘타리 작가에게 전화하여 인터뷰 후에 업소 주인이 무슨 말 물었는지 추궁했다고 하면서 경찰이 아닌지 다시 확인하였다.

술만 파는 바는 주인에게 직접 찾아가 미성년자들의 인터뷰를 요청하였고 주인은 일인당 200바트의 비용을 요구하여 지불하면서 이들 여성들(5명, 사례

16, 17, 18, 19, 20)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 작은 호텔방을 빌려 인터뷰하였다.

두 번째로 전세로 고용한 택시기사가 성매매여성을 조사대상자를 소개해 주었다(사례2, 13). 택시기사가 여성들의 현지에서 ‘프로바이더’라고 칭하는 중간 핌프와 연결되어 있어 관광객들에게 성매매여성을 소개하는 고리임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가라오케에 가서 한국인 지배인에게 가라오케 노래 시중들 여성을 미성년자로 소개해달라고 하여 가라오케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인터뷰하였다. 월요일 저녁이고 비성수기였으나 가라오케 방이 다 차서 30-40명이 들어갈 만한 큰 방을 빌릴 수밖에 없었고 시중드는 여성 비용으로 30분에 10불씩 20불을 지불해야 했다.

네 번째로 가라오케 지배인을 통해 자신이 거느리고 있고 손님이 요청하면 소개해주는 성매매여성들(6명, 사례 4, 5, 6, 7, 8, 9)을 소개받았다. 이 여성들은 매니저가 부르면 언제든지 응하는 공생관계에 있다. 특히 성매수자가 어려운 주문을 할 경우 (예: 먼 곳까지 가야하는 경우, 성매매 여성들의 휴식 시간인 낮 시간에 고객이 성매매를 요청할 때)에도 응할 수 있는 성매매여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 중요한데, 이날 인터뷰에 응한 여성 6명 중 4명은 이 매니저의 소개로 자신의 휴식 시간인 오전 중에 성매매를 한 차례 하고 왔다고 하였다.

이 매니저에게 20세 이하 미성년자이며 한국남성과 성관계 경험 있는 성매매여성을 조사대상자로 소개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27세인 여성 한명도 포함하여 소개하였다. 매니저는 조사대상자가 미성년자로 한정한다는 조건에 맞지 않으나 조사자가 조사대상자에게 1천 바트씩 지불하는 것을 알고, 돈벌이가 좋지 않은 이 여성에게 1천 바트의 돈을 벌게 해주려는 목적으로 모른 척하고 데리고 온 것으로 보였다.

27세의 여성 사례7은 매니저와 성매매 여성들의 공생관계를 잘 나타낸다. 가이드에 의하면 이 여성은 못생기고 나이가 많아, 가라오케에 매일 성실히 나가 있어도 성매매할 기회가 적어 매니저에게 성형이라도 하겠다고 의논했으나 매니저가 살을 빼면 한달에 적어도 4번 이상은 성매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매니저가 약속을 지키면서 매니저와 서로 신뢰하는 공생 관계를 형성하였고 인터뷰에도 초대한 것이었다.

오후 3시에 매니저 집에서 인터뷰하기로 하였는데 성매매 여성들은 모두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으나 전세 택시기사가 장소를 못 찾아 조사자, 통역, 가이드가 오후 4시에 매니저 집에 도착하자, 매니저가 화를 심하게 내었다. 자신은 이 여성들과 신뢰 구축이 제일 중요하고 이들은 한 번 신뢰를 무너뜨리면 다시는 관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자 일행이 약속시간 보다 늦게 온 것에 대해 매우 화를 내었다. 이 매니저가 조사자 일행에게 화를 과도하게 낸 것은 이 여성들에게 자신은 이들을 보호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여성들은 성매매를 자주하기 위해 지배인에게 잘 보여야 하나 지배인도 성매수자가 요청할 때 성매매여성을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배인의 요청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는 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들과도 평소에 신뢰관계를 쌓아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로 이미 인터뷰를 한 여성에게 태국인 다큐멘타리 작가가 자신의 휴대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친구를 소개해달라고 하여 이들 여성의 친구를 소개하여 인터뷰를 한 사례이다. 사례2가 2명(사례11, 12) 사례3번(사례10)이 1명의 친구를 소개하였다.

인터뷰는 레스토랑, 가라오케 매니저의 집, 작은 호텔방 등에서 이루어졌다. 성매매여성들이 성관계한 남자 중에 계속 파타야에 오는 한국 남자들이 있다고 하면서 이들을 호텔에서 만날까봐 호텔로 오는 것 꺼려서 인터뷰를 호텔 커피숍이나 로비에서 할 수 없었다.

인터뷰는 개별 인터뷰를 원칙으로 하고자 하였으나 단시일 내에 인터뷰를 해야 했고 조사대상자들도 시간에 쫓겨 집단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사례 4,5,6,7,8,9 등 6명을 집단 면접을 하였고, 사례 11, 12, 사례 14, 15, 사례 16, 17 등도 2명의 단위로 각각 인터뷰하였다. 사례 18, 19, 20의 3명도 함께 인터뷰하였다. 바에 속해 있으면서 성매매를 하는 사례 16, 17, 18, 19, 20 중에서 사례 16, 17은 같은 바에서 일하였고 나머지 3명은 각각 다른 바에서 일하였다.

인터뷰는 성매매 여성들이 휴식을 취하는 시간인 오후의 시간인 4시에서부터 일부 진행되었고, 또 오후 6시경의 영업이 시작되기 직전에도 이루어졌다. 또한 영업장에서 인터뷰할 경우 영업시간인 오후 8시경부터도 진행되었다. 바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경우 밤 11시부터 새벽 2시30분까지 진행하기도 하였다.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태국인 다큐멘타리 프로듀서가 태국말로 인터뷰하여 영어로 통역을 해주면 조사자가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다시 영어로 질문하면 이 프로듀서가 다시 태국어로 질문을 이어가는 형태로 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지에 의한 질문이 끝나면 일반적인 인구학적 배경을 묻는 질문지 내용을 개별적으로 물어 작성하였다.

태국인 다큐멘타리 프로듀서는 우리나라 텔레비전이 태국 관련 다큐멘타리 제작에도 참여한바 있고 현재 메콩강을 주제로 다큐멘타리를 제작 중인 중견 작가이다. 이 프로듀서는 이 연구에 대해 신속히 잘 이해하였고 인터뷰 대상자 교섭 등의 주요한 일을 처리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 밖에 현지 한국인 여성 가이드도 조사에 적극 도움을 주었는데 이 가이드는 태국에서 9년째 거주하는데 태국과 파타야의 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전세로 고용한 택시의 운전사도 조사대상자를 소개하여 주었다.

인터뷰는 개인당 약 50분이 소요되었는데, 집단 인터뷰는 시간이 약간 단축되었고, 6사례 집단 인터뷰의 경우 2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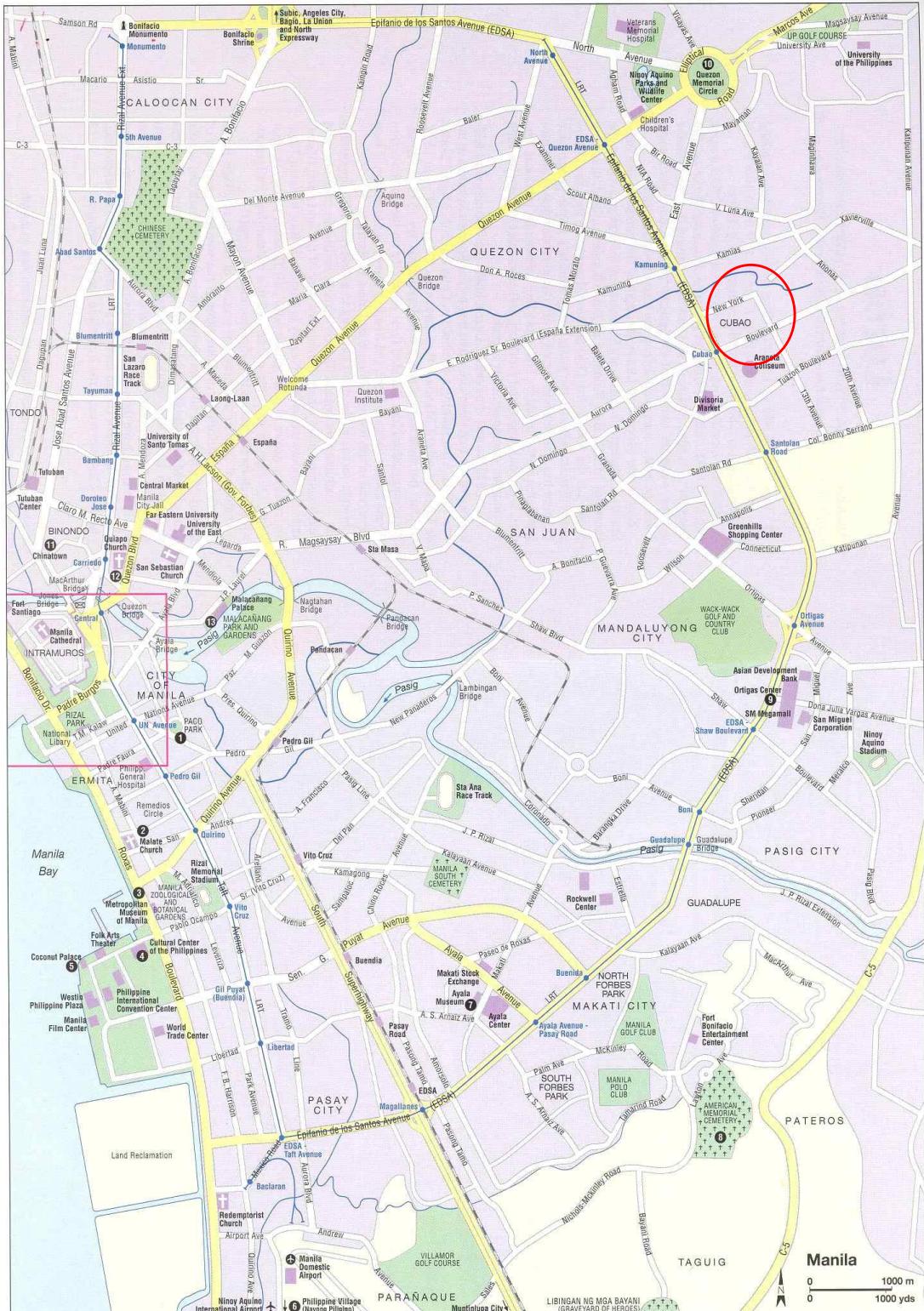
인터뷰에 응한 여성들에게 1천 바트(약2만7천원)씩 사례로 지급하였다. 사례비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사례2나 3이 자신의 친구들을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자들은 사례비를 받고 기뻐하는 모습이 역력하였다. 그러나 사례비를 자신이 다가지는지 의문이 들었다. 중간에 소개한 택시기사, 프로 바이더(펌프), 매니저, 가이드 등과 나누어 가지는지, 나누어 가진다면 어떤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지는 알 수 없었다. 바에서 일하는 여성 5명을 인터뷰하기 위해 바 밖으로 데리고 나오기 위해 바 주인에게 따로 일인당 200바트씩 지불하였다.

당시 조사 기간은 태국 관광에서 손님이 가장 없는 비성수기여서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를 못해서 매우 한가하여 조사 대상자들을 비교적 손쉽게 접촉하고 인터뷰할 수 있었다.

나. 필리핀

필리핀 현지 실태조사는 크게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 시내 그리고 세부를 중심으로 2006년7월27일부터 2006년 9월30일까지 진행되었다. 마닐라 시내는

6개 지역 (Pasig, Malate, Timog, Quezon Avenue, Kamuning 및 Cubao 지역)에서 실태조사가 진행되었다.



<마닐라시내 조사지역>

마닐라지역은 ECPAT Philippines의 직원과 자원봉사자 6명으로 구성된 조사연구팀이 중심이 되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지를 영어로 번역하여 본 센터에 제출하였고, ECPAT Philippines의 대표인 Dolores Alforte가 조사 결과에 대한 일차적 분석을 하여 영어로 기술한 것을 보내왔다. 세부지역에서는 사회사업가로, Balay Isidora Foundation에서 진행하는 Mother & Child/ Advocacy Project의 책임자로 성매매여성들의 쉼터의 관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Carmelita Igot Pelone가 직접 사례조사를 실시하였고 영어로 일차 분석하여 보내왔다.

이에 앞서 본 연구자가 필리핀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자들에게 조사 방법을 인지시켰으며 현장에서 직접 인터뷰를 실시하면서 어떻게 조사해야하는지를 시범을 보였다. 본 연구자도 마닐라와 세부에서 성매매를 경험한 미성년소년 소녀들을 인터뷰하였고 현지 사정을 관찰하였다.

실태조사는 마닐라 및 근교에서 71명의 성매매 여성과 남아를, 그리고 세부 및 라푸라푸시 미성년 및 성년 성매매 여성 25명으로 총 96명을 조사하였다. 그 중 한국 남성과 성매매 경험이 없는 마닐라 지역에서 조사된 22 사례는 분석에서는 제외하여 마닐라 지역에서는 49사례가 분석대상으로 하여 총 71 사례를 분석하였다. 여기에 덧붙여 연구자가 직접 마닐라에서 한국인이 경영 하던 아동포르노 숍에서 5년간 성 착취를 당했던 18세 소년소녀부부와 20세의 성매매여성을 인터뷰하였고, 세부에서는 6명을 인터뷰한 결과를 위의 사례에 기반한 분석을 보완하여 기술하였다.

실태조사는 마닐라의 경우, 조사자들이 미성년자 성매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활동해온 ECPAT Philippines에서 직원이나 자원봉사자로 오랜 동안 일 해왔기 때문에 성매매하는 미성년자와 평소에 친분관계가 있어 이들을 일차적인 대상자로 하였고, 또한 이들과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주변의 성매매 미성년자들과 접촉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이들은 그동안 쌓은 성매매 미성년자와 접촉하는 노우하우를 바탕으로 밤에 길거리에서 직접 미성년 성매매여성을 만나 실태조사에 응할 것을 권장하여 승낙을 얻어 실시하였다.

세부에서는 25사례는 쉼터의 관장이 쉼터를 거쳐 다시 성매매 현장으로 돌아간 미성년 성매매자들과 그 친구들을 접촉하여 인터뷰하였다, 연구자가 필리핀 방문 당시 이 쉼터와 재활센터를 이용하는 미성년 성매매여성들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는데, 연구자가 컴퓨터에서 5명과 약 4시간에 걸쳐 집단 면접을 실시하였고, 세부 근교에 위치한 재활센터에서 1명을 인터뷰하였다.

필리핀 현지인에 의한 조사 일정 및 조사자				
마닐라 시내		세부 및 라푸라푸시		
현지 진행팀	ECPAT Philippines의 네트워크 ECPAT Philippines 대표 Dolores 외 6명의 활동가 (Erica, Ate Jo, Sophia, Lorie, Renean, Joel)	현지 진행팀	Carmelita I. Pelone 사회사업가	
조사기간	1차 : 2006.07.27 ~ 2006.09.06 2차 : 2006.09.07 ~ 2006.09.30	조사기간	2006.10.02 ~ 2006.10.07	
조사대상	71명 (남아 12명 / 여아 59명)	조사대상	25명 (미성년자 여성 23명 / 성년여성 2명 /)	
총 응답자 수	96명 (남아 12명 / 여아 82명)			

필리핀의 경우 집창촌, 마사지 습, 바 뿐 만아니라 길거리에서 호객 행위를 하고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디스코 넥을 통해서도 개별적으로 성매매를 한다. 2차로 실시한 조사의 대상자 48명의 경우 31명이 길거리에서 펌프와 함께 또는 홀로 일하는 경우이었다.

조사는 태국과 필리핀 모두 이 연구를 위해 만들어진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태국과 필리핀 조사의 설문은 같은 설문 내용은 크게 인구학적인 배경, 건강상태, 피해아동 가족의 태도, 수입 및 지출 진행과정, 현재 일에 대한 내용, 강제성 및 미래계획, 현재 일에 대한 어려움과 도움, 한국남성 성매수자에 대한 경험 등으로 구성되었다.

III. 조사대상지역

1. 태국

가. 일반적 개요

(1) 위치 :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중앙

(2) 면적 및 지형의 특징

해안선이 2,614km에 달하고 동쪽으로는

태국만, 서쪽으로는 안다만(Andaman)

해를 끼고 있으며 미얀마, 라오스, 캄보

디아,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총면적은 51만 3119km² 이다.

국토의 28%가 삼림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41%가량은 경작지로 구성되어 있다.



(3) 언어 : 태국어

(4) 인구: 약 6100만 명(타이족 81.5%, 화교 13.1%, 소수민족 5.4%)

(5) 기후

열대 몬순 기후로 건기(11월 중순~2월 중순), 하절기(2월 중순~5월 중순), 우기(5월 중순~11월)로 나뉘며 평균온도는 27-30°C이다.

(6) 정체

입헌 군주제로 1932년 이래 현재의 라마 9세 푸미폰 아둔야뎃(H.M. King Bhumibol Adulyadej) 국왕에 이르기까지 태국의 국왕들은 국회를 통하여 입법권을, 수상이 이끄는 내각을 통하여 행정권을, 사법부를 통해 사법권을 행사해 오고 있다.

(7) 종교

세계에서 가장 독실한 불교국가로 소승불교의 한 갈래인 남방불교이며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믿고 있다. 나머지 10%가 이슬람교, 기독교, 힌두교도이다. 불교는 태국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며 고승들은 크게 존경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와 마을의 불교사원(wat)는 사회, 종교적인 생활의 중심부가 되고 있다.⁹⁾

(8) 경제 및 산업구조의 특징

면적 대부분이 비옥한 평야지대로 예부터 쌀, 옥수수, 타피오카, 면화, 콩, 목재, 고무야자 등을 재배하는 전통적 농업국가이다. 그런데 1961년 이래 '경제사회개발계획'이 진행되면서 태국의 경제구조는 농업국에서 신흥공업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 태국은 남북으로 21,645km에 달하는 비옥한 국토, 2,614km의 해안선을 따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을 외화획득의 주요 산업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태국은 경제가 고도의 기술이 필요 없는 1차, 3차 산업으로 유지되는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 결과가 국민 전체로 고루 분배되지 않는다. 부가 대도시와 대기업체, 소수의 정치, 경제인에게 집중되어 중산층이 빈약하고, 다수의 저소득층인 소농가에게 부가 배분되지 않는 불균형적 성장으로 인하여 방콕과 지방 간 격차는 심화되었고, 각 지역간 소득 불균형은 심각한 문제로 남았다. 즉, 빈곤한 농촌을 더욱 빈곤하게 되었고, 농민들이 빈곤을 피해 농촌지역에서부터 도시지역으로 몰려들어 그에 따른 문제점 또한 심각하다. 또한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고 금리를 인하해 농업지역을 포함하여 대출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 결과 신용카드 부작용, 손쉬운 신용대출로 가난한 국민들의 부채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¹⁰⁾

나. 파타야 지역

파타야는 방콕, 푸켓 등과 함께 태국의 주요 관광지로 우기의 시작을 알리는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부는 바람이란 뜻을 지니고 있는데, 방콕에서

9) 태국대사관(<http://www.thaiembassy.or.kr/thai.htm>) 태국 소개

10) “현대판 노예제-태국의 아동/인신매매 성매매를 중심으로”, 김주희(서울여대),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http://ijunodong.prok.org/>) 다른나라 문화 엿보기 게시판

남동쪽으로 147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파타야는 방콕에서 자동차로 약 2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지리적으로 이점과 아름다운 경관으로 “아시아 휴양지의 여왕(Queen of Asia's Resorts)”, “동양의 하와이”, “타이의 리비에라”라고 불리 우면서 전세계로부터 연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려드는 동남아시아 최고의 해변 휴양지이다. 20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 파타야는 옛날에는 왕실 요트 클럽만 있는 한적한 어촌에 불과했으나 1961년 베트남 전쟁 시 미국의 휴가병을 위해 나홋 랫차시마 지역을 방문한 미국의 관광 개발 그룹에 의해 세계적인 휴양지로 발전하였다. 파타야가 태국 관광산업에 차지하는 비율은 약 25%가량으로 400여개의 호텔을 비롯한 다양한 숙박시설이 관광객에게 제공된다.

파타야에는 타이만을 향해 전체 3km의 기다랗게 펼쳐진 해안선을 따라서 남북으로 두 개의 큰 도로가 있는데, 두 도로 사이에 호텔들과, 나이트클럽 등이 북적거리고 있어 밤에는 화려하고 다채로운 색깔의 유흥도시로 불야성을 이룬다.¹¹⁾ 이제는 'Phat Pong on the beach' 즉 해변의 팟퐁으로 불릴 정도로 공공연한 섹스관광명소로 이름이 나있어 유럽과 아시아지역의 관광객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파타야 중심가의 길거리에는 저녁이 되면 성매매 여성들이 넘쳐난다. 짧은 여성들이 손님을 호객하기 위해 바 앞 길거리에서 반라의 차림으로 춤을 춘다. 환락가 중심부에 있는 유흥업소 앞에는 따로 설치된 유리 방 속과 계단에서 반라의 여성들이 춤을 추면서 고객을 끌어들인다. 해변가에서는 프리랜서로 성매매하는 여성들이 개별적으로 외국관광객과 흥정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유흥업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크게 세 가지 업소를 들 수 있는데 첫째 바디 마사지업소, 둘째 가라오케, 셋째 바이다. 바디 마사지업소는 성매매를 노골적으로 하는 업소로 태국식 마사지를 주업으로 하는 마사지 업소와는 다르다. 바디 마사지업소는 한 쪽 벽을 통유리로 하여 운동장과 있는 것과 같은 계단식 벤치에 여성들이 반라로 핑크빛 조명 아래에 앉아서 손님에서 선택되기를 기다린다. 다른 쪽은 넓은 훌에 술집과 레스토랑과 같이 테이블에서 남자들은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통유리 안쪽에 있는 여성을 관찰한다. 남자들이 벤치에 앉아 있는 여성들 중에서 선택하여 웨이터에게 알리면 안쪽에서 마이크로 여성을 호출하고

11) 최강세계여행정보(<http://www.eyeofeagle.co.kr>) “파타야”

함께 위층에 있는 방으로 가서 성매매를 하는데, 여성들은 남성에게 선택되는 경우 하루에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다. 파타지역에서 가장 큰 바디마사지 업소의 경우 벤치의 앉아 있는 여성의 수가 60-70명 정도 되었다.

두 번째로 성행하고 있는 곳이 가라오케이다. 가라오케에서도 서빙하는 여성들이 한꺼번에 서서 손님을 맞이하고 이 중에서 손님들이 서빙할 여성을 선택한다. Brown(2000)에 의하면 이 과정은 가축을 사기 위해 살펴보는 것과 같이 남성들이 여성의 몸을 만져보고 조사한다고 한다. 노래방에서 여흥이 끝난 후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매니저에게 여성을 알선해 달라고 요청하면 매니저가 가라오케에서 서빙하는 여성 또는 매니저가 연결되어 있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성매매 여성이나 이들 여성의 ‘프로바이더’에게 연락하여 성매매를 알선해준다. 파타야에는 한국인이 경영하는 가라오케가 10여 곳이 있으며 이 가라오케에는 400-500명의 여성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업소로 셋째 바(Bar)를 들 수 있다. 바에는 바 안에서 술을 서빙하는 여성을 고용하는데 서빙을 하지 않는 여성들은 반라의 모습으로 바 밖에 앉아 있거나 서서 춤을 추면서 고객을 부른다. 고객은 바에서 술을 마시고 성매매를 원할 경우, 성매수자가 바에 있는 여성 중에서 선택하여 다른 곳으로 가서 성매매를 하게 된다.

성매매하는 여성들이 얼굴이 예쁘면 성매매(현지에서는 outing이라 칭함)를 자주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수입이 매우 적어서 계속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가라오케나 바에 출근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얼굴이나 몸매가 예뻐 성매수자가 성매매하는 상대로 고를 가능성이 높아야 지속한다.

단체관광객의 경우 가이드가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저녁에 환락가로 나갈 사람을 모아서 특정 바디 마사지업소나 가라오케에 안내를 하고 이 업소를 통해 성매매하게 된다.

가라오케와 바를 통해 성매매를 할 경우 업소 내에서는 성매매를 할 장소가 없어 밖으로 나가야하기 때문에 성매매를 통칭 ‘outing’으로 칭하고 있었다. 성매매는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등급이 높은 호텔에 성매매여성을 데리고 갈 경우 ‘Join us charge’라고 하여 호텔 숙박비에 약 반에 해당하는 돈을 남성이 호텔에 물어야하고 여성은 신분증을 프론트 데스크에 맡겨야 한다. 소규모의 등급이 낮은 수많은 호텔이나 숙박시설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는데, 자동차 주차장과 방이 연결되어 있어 누구도 만날 필요 없이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모텔이 쌍값에 많이 이용된다.

태국의 탁신 정부는 태국이 불교 국가인 점에 비추어 유흥산업을 통제해야 한다고 보고 최근 유흥업소에서 술을 파 수 있는 시간을 새벽 1시 까지만 허용하였고 이를 어겨 3번 이상 단속에 걸리면 퇴출하는 법을 시행 중에 있다. 실지로는 법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는 의문이었다.

또한 태국 당국은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강력히 단속한다고 선포하였지만 실지로 미성년자 성매매는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실지로 태국에서 미성년자로 간주하는 18세 이전과 이후 성매매를 하는 데는 아무런 다른 점이 없다고 한다. 업소 주인이 ‘다 알아서 처리’하는데, 경찰이 검색 전에 업주에게 통보해 주어 업소에서 미성년의 여성이 사라지거나 경찰에게 웨이트 서비스라고 말하면 검색에서 통과된다. 업소 주인이 경찰에게 뇌물을 주고 해결해서 미성년자라고 해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몇 년 전만해도 단속이 심하였으며, 단속에서 연행되면 경찰서 유치장에서 며칠 지내다가 벌금을 물고 나오기도 했다고 한다.

2. 필리핀

가. 일반적 개요

(1) 위치 : 적도의 약간 북쪽, 아시아 대륙 남동쪽의 서태평양에 산재하는 섬들로 구성된 나라

(2) 면적 및 지형의 특징

300,400km²(한반도의 1.3배), 7,107개의 도서로 구성, 전체의 65%가 산악지대, 루손(104,688km²)과 민다나오(101,999km²) 섬이 총면적의 65% 차지



(3) 언어: 타갈로그어, 영어

(4) 인구: 8,520만 명

(주요도시 마닐라-1,110만, 세부-100만)

(5) 기후

고온 다습한 아열대성 기후(연평균 27°C), 건기(12-4월)와 우기(5-11월)로 대별, 태풍 · 지진 · 화산 등 자연재해 빈발

(6) 정치: 공화제

(7) 종교: 카톨릭(83%), 신교(9%), 회교(5%), 불교 및 기타 (3%)

(8) 경제 및 산업구조의 특징

필리핀은 전형적인 농업국이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제1차 산업,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데, 벼농사를 주로 하고 있으나 2006년에는 쌀조차도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 경제는 매우 어렵다.

임업도 매우 중요한 산업의 하나로 민다나오섬을 중심으로 나왕 목재의 벌채가 성하다. 최근에는 나무의 남벌로 임산자원의 고갈이 문제시되고 있으며, 국내에 합판공장이 대량 건설되어 목재수출의 증가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지하자원으로는 동광 철광을 비롯하여 금, 크롬, 망간, 니켈 등이 주요 광물로 꼽힌다. 1970년대부터 유전 탐사를 활발히 전개하였고 그 결과 1979년부터 채유가 시작되었다. 수산자원도 풍부한 편이지만 미개발 부분이 많다. 필리핀 정부는 마닐라와 아름다운 섬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은 빈부격차가 극심하여 흔히 2계급 사회라 불린다. 즉 사회 전체가 일부의 부유한 상류층과 농민, 근로자로 구성되는 하류층으로 나누어져 실질적으로 중간계층이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¹²⁾

12) 네이버 백과사전 “필리핀” 경제 및 사회

나. 마닐라

“메트로 마닐라”라고도 불리는 마닐라는 루손섬 남서부에 있는 필리핀의 주요 도시이자 수도이다. 7개의 도시와 10개의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는 마닐라는 6백 30평방 킬로미터의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마닐라”라는 어원은 마닐라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흐르는 파시그강에 피어있던 “니라도라”라는 꽃 이름에서 유래되어 “니라도라 꽃이 많이 피어있는 곳”이란 뜻을 가진 말이라고 한다.

또한 천연의 항구 마닐라만의 동해안에 위치하는 대도시 마닐라는 필리핀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항만으로 일컬어지는 마닐라만에 임한 항구도시로, 시가지는 파시그강을 끼고 그 남북으로 펼쳐진다. 마닐라항은 파시그강 하구를 사이에 두고 북항과 남항으로 나뉘며 내항선광 외항선이 접안한다. 북쪽에는 비옥한 중부의 루손 평야를 남쪽에는 남부 루손의 화산성 저지를 끼고 있다.

마닐라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파괴되고 나서 재건한 뒤로 아주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출판 및 인쇄업, 식품가공업을 비롯해서 섬유, 페인트, 약품, 알루미늄제품, 밧줄, 구두, 담배, 코코넛기름, 비누, 목재 생산과 같은 제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필리핀의 상업과 재정중심지로서 여러 주요 은행과 정부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보험회사들의 본부, 마닐라 증권거래소 등이 있다. 마닐라를 주변으로 한 수도권 인구 수는 12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이지만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하다. 호화로운 고층빌딩과 주택가가 있는가 하면 동양에서 가장 못사는 사람들이 사는 빈민층의 슬럼가도 있다. 부유층이 사는 지역과 그 밖의 지역이 높은 벽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일반인은 부유층이 사는 지역을 출입할 수 없다.

마닐라는 유흥산업 또한 발달된 곳으로써 밤의 도시로 불리기도 한다.¹³⁾ 주로 대학생~30대 정도의 학생들이 자주 찾는 환락가로는 마닐라 베이 뒷골목인 아드리아띠꼬와 마비니 스트리트, 외곽으로는 마카디 그리고 에비뉴를 들 수 있다.

조사 지역에서는 밤늦게 길거리에 서서 개별적으로 호객행위를 하고 성매매 여성과 펌프들을 흔히 볼 수 있고 유흥업소 앞에서 춤을 추면서 호객행위를 하는 여성들도 있다.

13) 최강세계여행정보(<http://www.eyeofeagle.co.kr>) “마닐라”

다. 세 부

마닐라 동남쪽에 있는 세부는 필리핀 군도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고 필리핀 유일의 리조트 아일랜드로서 알려져 있다. 1521년 마젤란이 필리핀 상륙 시 첫발을 기록한 섬으로, ‘퀀시티’라 불리고 있다. 마닐라 동남쪽 560km로 비사야 섬들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세부는 길이가 300km로 인구 약 250만명이고 서쪽으로 네그로스섬과 동쪽으로 보홀섬을 두고 있으며, 크고 작은 167개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면적은 4,411km²이다.¹⁴⁾ 세부지역의 해안선을 따라 수많은 휴양지가 들어서 있다.

세부에는 별5개의 최고급 호텔이 있으나 성매매가 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집창촌이나 환락가의 시설은 좋은 편은 아니다.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가라오케나 바도 초라한 시설에 붉은 등불이나 반짝이 불빛으로 고객을 끌고 있다.

14) 최강세계여행정보(<http://www.eyeofeagle.co.kr>) “세부”

IV. 성매매여성들의 실태

1. 인구학적 배경

가. 태국 파타야 지역

(1) 연령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대상자 20명 중 한명을 제외하고 19명이 모두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었다. 19세 이상 20세 미만이 5명, 18세 이상 19세 미만이 5명, 17세 이상 18세 미만이 8명, 16세 이상 17세 미만이 1명, 나머지 한명은 27세였다. 27세의 여성도 사례에 포함시킨 것은 이 여성도 15세부터 성매매를 시작하였는데 미성년자일 때 시작하여 성년이 된 이후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알아보고 또 이 여성은 통해서 미성년 성매매여성들의 앞날을 예측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표4-1> 조사 대상자의 연령

단위: 명(%)

연령	응답자 수
19세 이상 20세 미만	5 (25)
18세 이상 19세 미만	5 (25)
17세 이상 18세 미만	8 (40)
16세 이상 17세 미만	1 (5)
기타(27세)	1 (5)
총 계	20 (100)

(2) 성매매에 종사한 횟수

성매매에 종사한 횟수는 약 3분의 2가량이 2년 미만이며 나머지는 2년 이상이었다. 종사한 횟수는 매우 다양하여 한 달 밖에 안 된 경우에서부터 12년 종사한 여성도 있었다.

<표4-2> 성매매에 종사 한 횟수

단위: 명(%)

횟 수	응답자 수
4년 이상	1 (5)
3년이상 4년미만	1 (5)
2년이상 3년미만	4 (20)
1년이상 2년미만	7 (35)
1년 미만	7 (35)
계	20 (100)

(3) 성매매에 종사하기 시작한 연령

조사대상자 모두가 어린 나이에 성매매에 유입되었는데, 대부분이 17세 이하일 때부터 성매매에 종사하였다. 27세의 여성은 15살부터 성매매를 시작하였는데, 이 여성은 간헐적으로 성매매에서 벗어나서 다른 일에 종사하기도 하였으나 성매매에 지속적으로 종사하였다.

태국 당국은 미성년 성매매는 엄격히 금지한다고 하나 실지로는 미성년이라고 해서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년 전 경찰에 체포되면 별금 물고 풀려나왔고, 2년 전에는 미성년 단속 있어 숨기도 했지만 요즈음은 별로 단속이 없어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했다. 미성년 여성들도 업주가 경찰과 결탁하여 보호해주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고 했다.

<표 4-3> 성매매에 종사하기 시작한 연령

단위: 명(%)

연령	응답자 수
18세 이상 19세 미만	3 (15)
17세 이상 18세 미만	6 (30)
16세 이상 17세 미만	10 (50)
15세 이상 16세 미만	1 (5)
계	20 (100)

(4) 학력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으로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한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여성의 학력이 높지 않았다. 개방대학(2년제)을 졸업한 경우도 한 사례가 있었는데, 개방대학은 고등학교 때부터 수강할 수 있어 조기 졸업이 가능하다.

<4-4> 조사대상자의 학력

단위: 명(%)

학력	응답자 수
중학중퇴	2 (10%)
중학교 졸업	9 (45%)
고등학교 중퇴	5 (25%)
고등학교 졸업	3 (15%)
개방대학(2년제) 졸업	1 (5%)
계	20 (100%)

(*고등학교 때부터 수강하여 빨리 졸업할 수 있음)

(5) 가정환경

가정환경은 부모가 다 생존해 있는 가정이 12가정이나 실질적으로 부모와 관계를 하고 있는 경우는 10사례이며 2사례는 이혼 후 각각 재혼을 하여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이혼 이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이다. 이 사례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자신이 유일한 생계유지자이다. 절반이 부모가 다 생존하고 있는 가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부모가 생존한 경우에도 가난으로 인해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성매매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모자가정의 경우 5사례이며 고아인 경우가 1사례인데, 조부모와 살고 있는 사례 두 경우를 합치면 8사례가 전형적인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이 아니며, 조부모와 함께 살거나 고아인 경우에는 자신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표 4-5> 조사대상자의 가족상황

단위: 명(%)

가족형태	응답자 수
부모 생존	10 (50)
할머니 / 할아버지	2 (10)
모자가정	5 (25)
고아	1 (5)
연락두절	2*(10)
계	20(100)

(*부모가 다 살아있으나 이혼 이후 각각 재혼을 하여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이혼 이후 연락이 두절된 사례)

자신의 자녀가 있는 경우가 5사례나 되었는데 모두 어린 나이에 태국 남성과 동거하여 자녀를 낳았다. 27세의 된 사례7도 아이가 있고 4명의 10대 여성들은 2살부터 석 달된 자녀를 키우고 있었다. 한 사례만이 동거했다 혼자 남자와 연락을 하며 약간의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모두 홀로 자녀양육비를 부담해야하였다. 한 사례는 직접 아이와 함께 살면서 일하는 동안 탁아를 하면서 키우고 있고 나머지는 자신의 어머

니와 친척에게 맡겨 놓고 있었다. 가이드에 의하면 태국사람들 상류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결혼식을 하지 않고 동거한다. 동거하다 헤어지면 아이들 어머니가 맡아 기르는데, 미혼모들이 남자의 도움 없이 생계 꾸려갈 방도가 별로 없다고 한다.

8사례가 자신이 형제 중 제일 맏이거나 유일한 자녀로 부모와 동생들을 위해 희생하여 성매매에 종사하였고, 다른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가 3사례로 이 경우는 조부모와 어머니가 경제력이 없거나, 어머니가 해외로 취업 간 경우로 스스로 생계를 꾸려야 하는 처지에 있다.

언니 오빠가 모두 있는 경우 5사례, 오빠가 있는 경우 3사례, 언니가 있는 사례1 경우로 자신보다 더 큰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가 9사례나 되었다. 언니들은 혼인으로 출가하였고 오빠들도 자신의 가정을 꾸리거나 가족에 무심하여 자신이 생계를 담당하거나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0대의 남자들은 일할 기회 적고 있다 해도 성매매에 비해 임금 훨씬 적다. 태국에서 딸은 가족을 돌보는 역할의 부담이 주어지는데(Brown, 2000) 가정에서 여성의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여성을 성매매시장으로 내몰고 있다.

(6) 출신지와 주거상태

출신지는 북부지방이 15명이나 되었다. 북부지역은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태국에서도 특히 빈곤지역으로, 이 지역이 성매매 여성을 보내는 지역으로 보인다. 특히 동북부지방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13명이나 되었고 나머지 2명 중북부지역 출신이었다. 나머지는 파타야 근처 3명, 방콕근처 출신이 1명, 남쪽지방 출신이 1명이었다.

태국이 수출지향적인 산업화를 지향하면서 농촌과 도시, 지방간의 빈부 격차가 심해졌는데 농업을 위주로 하는 북부지방은 더욱 빈곤화되었는데, 이러한 가난한 지역에서 부유한 지역으로 여성들이 이동하여 성매매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파타야 외의 지역에서 고향을 떠나온 대부분의 여성들은 룸 메이트와 함께 방을 얻어 집단적으로 거주하였다. 이는 주거비를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집을 떠나 생활하는 젊은 여성들은 서로 의지하면서 산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은 자녀는 부모나 친척 등에게 맡기고 떨어져 나와서 살고 있었다.

파타야 지역 출신들도 자신의 가족과 함께 살지 않고 가족들과 떨어져 방을 얻어 따로 나와 룸메이트와 거주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일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리고 가족이 비록 알고 있다하더라도 자신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꺼리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사례만이 룸메이트와 같이 방을 사용하지 않고 혼자 방을 얻어 살고 있었는데 (13번) 학력이 높고 방콕 근처 출신으로 자신의 일을 다른 친구나 고향 친지들에게 숨기고 싶어 하여 높은 비용을 혼자 부담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사례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모두 부양하는 가족을 데리고 사는 경우였다. 그 중 한명은 고향을 떠나 동생들을 데리고 함께 거주하면서 학교 보내면서 그 뒷바라지를 하였다. 다른 한 경우는 어린 자녀 (딸)을 데리고 함께 살았다.

(7) 건강상태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10대의 젊은 여성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성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였다. 태국정부가 카드를 발급하고 30바트만 내면 검진할 수 있는 클리닉을 지정하고 있으나, 이 클리닉에서 검진 받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기다려야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비 1천 바트를 들여 검진해야한다.

바에 종사하는 경우 업소에서 1개월, 3개월, 6개월 마다 검진하고 증명서를 제출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바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자주 검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소는 자신의 업소에 종사하는 여성을 통해서 성병이나 에이즈 문제 발생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업소에 근무하는 여성의 경우 검진을 엄격하게 요구한다. 그러나 프리랜서의 경우 대부분 1년 이상 검진을 하지 않았거나 아직 한 번도 검진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에이즈나 HIV 양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며 대부분 걱정을 하고 있고 검진을 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는 경우에도 건강 상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였다. 성병 외에도 생리가 불규칙하고 피로를 심하게 느껴 건강을 염려하는 사례도 있었다(사례3).

유흥업소에서는 자신의 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 성병에 대해 주의하도록 주지시키며 콘돔 사용을 권장한다. 이들은 성매매에서 콘돔을 사용하는 것을 철칙으로 생각하고 준비하여 사용하며, 콘돔을 사용하지 않을 때 성매매를 거부하기도 한다. 이는 태국 정부가 1990년대부터 수백만 개의 콘돔을 모든 성매매 빈발 지역에 배포하면서 “콘돔을 사용하지 않으면, 서비스도 없고 서비스 요금도 반환하지 않는다”라는 표어를 사용하도록 장려하면서(데니스 올트만, 2001: 170) ‘100퍼센트 콘돔’ 캠페인을 벌여 태국에서 성매매여성들의 콘돔 사용에 대한 인식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나. 필리핀 마닐라, 세부 지역

(1) 연령

조사대상자는 총 74명으로 20세 미만의 미성년 남성 7명(13%), 여성 47명(63%), 20세 이상의 성년 여성 20명(24%)으로 구성되어있다. 지역 별에 따른 조사대상자 수는 마닐라 및 근교 49명 그리고 세부 및 라푸라푸시 25명(윤락여성 및 소녀 25명)으로 필리핀 수도와 한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세부를 중심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표 4-6> 지역별 조사대상자 수

단위: 명(%)

지 역	조사대상자 수			합 계
	남 아	여 아	윤락여성	
마닐라 및 근교	7 (14)	25(51)	17(35)	49(100)
세부 및 라푸라푸시	0 (0)	22(88)	3(12)	25(100)
계	74(100)			

<표 4-7> 성별과 연령에 따른 조사대상자 수

단위: 명(%)

성 별	조사대상자 수	
	마닐라 및 근교	세부 및 라푸라푸시
미성년 남성	7(9)	0(0)
미성년 여성	25(34)	22(30)
성인여성	17(23)	3(4)
계	74(100)	

전체 조사대상자 74명 중 19세 이상 20세 미만이 13명(18%), 18세 이상 19세 미만이 18(24%)명, 17세 이상 18세 미만이 11명(15%), 16세 이상 17세 미만이 9명(12%) 그리고 15세 이하는 한 명(1%)이었다. 따라서 전체 조사대상자 74명 중 70%가 미성년자였다. 20세 이상의 여성(30%)을 포함시킨 것은 태국과 마찬가지로 이 여성들 역시 미성년자부터 성매매를 시작해왔기 때문이다.

<표 4-8> 성별에 따른 조사 대상자의 연령

단위: 명(%)

연 령	조사대상자 수		계
	남	여	
19세 이상 20세 미만	2(29)	11(16)	13(18)
18세 이상 19세 미만	0(0)	18(27)	18(24)
17세 이상 18세 미만	1(13)	10(15)	11(15)
16세 이상 17세 미만	2(29)	7(10)	9(12)
15세 이하	0(0)	1(2)	1(1)
20세 이상	2(29)	20(30)	22(30)
총 계	7(100)	67(100)	74(100)

지역별 조사대상자의 연령분포는 16세 이상 20세 미만이 마닐라 및 근교의 경우 전체조사대상자 74명 중 29명(39%), 세부는 22명(30%)로 전체 69%가 미성년자 여성, 남성이며 31%가 성년 여성이었다.

<표 4-9> 지역별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연령

단위: 명(%)

연령	조사대상자 수		전체비율
	마닐라	세부	
19세 이상 20세 미만	10(20)	3(12)	13(18)
18세 이상 19세 미만	9(19)	9(36)	18(24)
17세 이상 18세 미만	6(12)	5(20)	11(15)
16세 이상 17세 미만	4(8)	5(20)	9(12)
15세 이하	1(2)	0(0)	1(1)
20세 이상	19(39)	3(12)	22(30)
총 계	49(100)	25(100)	74(100)

(2) 성매매에 종사하기 시작한 연령

성매매를 시작한 연령에 대한 질문에 전체 조사대상자 74명 중 39명 (53%)이 응답해 주었는데, 조사대상자 36명이 17세 이하(92%)일 때부터 성매매에 종사하였다는 점과 이들 중 15세 이하에 성매매를 시작한 경우도 전체의 28%인 11명이나 응답했다. 대부분 성매매자들이 미성년 때부터 성매매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현지 NGO관계자들이 밝혀 응답하지 않은 조사대상자들도 대부분이 어린 나이부터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남아의 경우 <표 4-10>에서도 알 수 있듯이 15세 이하에 성매매를 시작하는 경우가 여아에 비해 그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16세인 한 남아의 경우 성매매 유입시기가 12세였다고 응답했다.

<표 4-10> 성매매 종사 시작 연령

단위: 명(%)

연령	조사대상자 수
18세 이상 19세 미만	3 (8%)
17세 이상 18세 미만	8 (20%)
16세 이상 17세 미만	17 (44%)
15세 이하	11 (28%)
총 계	39* (100%)

(*미응답자 35명 제외 함.)

<표 4-11> 성별에 따른 성매매 종사 시작 연령

단위: 명(%)

연령	조사대상자 수	
	남	여
18세 이상 19세 미만	0(0)	3(8)
17세 이상 18세 미만	0(0)	8(23)
16세 이상 17세 미만	1(25)	16(46)
15세 이하	3(75)	8(23)
총 계	4*(100)	35*(100)

(*미응답자 남아 3명, 여아32명 제외함.)

(3) 가정환경

전체 조사대상자 74명 중 68명(92%)가 가족관계에 대한 답변을 했다는는데, 가족환경과 관련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는데,, ‘혼자이며 가족과 관계가 단절되었다’가 38명(56%), ‘부모와 함께 거주 한다.’에 5명(7%) 그리고 ‘기타’에 25명(37%)를 차지했다. 25명이 응답한 ‘기타’의 의견으로는 친구와 함께 거주, 남자친구와 함께 거주, 조사대상자의 자녀와 함께 거주 등이 있었다.

즉, 전체 조사대상자 68명 중 63명이 전형적인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이 아니며, 혼자(독거)거주하거나 파트너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이며 또한 자기 자신의 자녀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 26명이 자신의 아이가 있는 경우 마닐라의 조사대상자 대부분은 아이를 가지고 있고 부모와 함께 산다. 15세에서 18세 사이의 5명의 소녀와 3명의 소년이 자녀가 있었다. 9사례는 자녀는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다. 15명이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으며 11명이 홀로, 10명이 친구와 살고 있었다.

<표 4-12> 조사대상자의 가족상황

단위: 명(%)

가족형태	조사대상자 수
혼자	38(56)
부모와 함께	5 (7)
기타(자녀와 함께??)	25 (37)
계	68* (100)

(*미응답자 6명 제외 함)

<표 4-13> 성별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가족상황

단위: 명(%)

가족형태	조사대상자 수		전체비율
	남	여	
혼자	4(80)	34(54)	38(56)
부모 생존	1(20)	4(6)	5(7)
기타	0(0)	25(40)	25(37)
계	5(100)	63(100)	68*(100)

(*미응답자 6명 제외 함)

전체 조사대상자 74명 중 자녀유무에 따른 문항에는 총 44(59%)명의 응답자가 답변을 했는데, 응답자 중 26(59%)명이 '자녀가 있다'고 응답

했으며 18(41%)명은 ‘자녀가 없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44명 중 20세 이상이 19명으로 전체 43%를 차지하며, 20세 미만이 57%로 10대의 어린 여성들이 이미 자녀를 가지고 있으면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6세 이상 20세미만의 조사대상자 25명중 12명(48%)이 ‘자녀가 있다’고 응답하여 10대의 임신과 자녀 출산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4-14> 연령별에 따른 자녀유무

단위: 명(%)

연 령	자녀가 있는 경우
19세 이상 20세 미만	2(8)
18세 이상 19세 미만	5(19)
17세 이상 18세 미만	3(11)
16세 이상 17세 미만	2(8)
20세 이상	14(54)
총 계	26(100)

<표4-15> 자녀 수

단위: 명(%)

자녀 수	조사대상자 수
1명	16(61)
2명	8(31)
3명 이상	2(8)
총 계	26(100)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26명의 조사대상자 중 자녀수가 1명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3명 이상도 2사례가 있었다.

(4) 출신지 및 주거 상태

마닐라의 경우, 마닐라 출신은 한명도 없었고 다만 마닐라에 산 적이 있는 조사대상자가 3명이 있었다. 대부분은 Bicol, Bulacan, Pangasinan, Laguna, Guian, Taytay 등 여러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주해 왔는데 세부 출신도 포함되어 있었다. 반면 세부의 경우 조사대상자들의 대부분은 민다나오 같은 필리핀 남부 출신들이다. 대부분 고향을 떠나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자중 대부분은 가족을 떠나 일을 하는 곳에 가까운 곳에 방을 임대한다. 타지방에서 이주해온 경우는 물론, 성매매를 하는 지역 근방 출신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숨기고 싶기 때문에 가족을 떠나서 살고 있다. 몇몇의 조사대상자들은 성매매가 행해지는 집결지에서 기거하기도 한다.

71명(96%)이 조사대상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상태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했는데, 이 중 40명(57%)은 방을 임대해서 거주하였으며, 자신이 일하는 바나 가라오케, 집결지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27명(38%)이며 거리에서 살고 있는 경우도 3명(4%)이나 되었고, 12세에 성매매에 유입되었다는 남아 한 명(1%)만이 ‘쉼터’에서 거주한다고 했다.

<표 4-16> 조사대상자의 주거형태

단위: 명(%)

주거형태	조사대상자 수
임대주택	40 (57)
쉼터	1 (1)
거리	3 (4)
일터(바, 가라오케, 집창촌)	27 (38)
계	71* (100)

(*미응답자 3명 제외 함)

<표 4-17> 성별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주거형태

단위: 명(%)

가족형태	조사대상자 수		전체비율
	남	여	
주택	6(86)	34(53)	40(56.3)
쉼터	1(14)	0(0)	1(1.4)
거리	0 (0)	3(4)	3(4.2)
기타	0 (0)	27(43)	27(38.1)
계	7 (100)	64*(100)	71*(100)

(*미응답자 3명 제외)

(5) 건강상태

대부분의 조사대상자 (조사대상)들은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응답했으나 세부의 조사대상자 중 7명이 감염성 성병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중 한 명은 한국인 고객에 의해서 강요당한 애널섹스에 의해서 항문에 염증을 앓고 있다고 대답했다. 염증의 이유로는 관광객들의 성적 괴롭힘 때문이라고 하는데 한국인 관광객도 여성들의 질병의 주요 요인을 제공한다고 한다. 대부분이 HIV, AIDS, 매독이나 생식기의 종양 같은 성-전염성 질병에 감염될까봐 걱정하였다. 세부 지역 사회사업가는, 세부의 NGO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세부지역에서 작년 성매매 여성 중에 68 사례가 HIV 감염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그 중에 이미 여러 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성매매여성의 인식 부족과 성매수자의 거부로 콘돔을 쓰지 않은 경우가 많아 성관련 질병에서 노출되고 있으며, 또 성매매여성을 통해 성매수자에게 병을 전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 중 절반정도가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회 보건 클리닉에 정기적으로 가서 신체검사를 받는다고 했다. 정부가 성병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절반 정도 밖에 신체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여 성병에 대한 걱정은 하고 있으나 실제로 성병 예방과 관리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여성들은 그 나이에 비해 대부분이 왜소하고 말랐는데, 어릴 때 부터 성매매를 하고 임신을 경험하여 성장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여성들은 하루 밤 사이에 여러 차례(6-8차례) 성매매를 하고 스트립 쇼를 해야 하여, 출지 않기 위해 강제로 각성제를 복용하였고, 때로는 고객의 강요로 마약을 복용하여 건강을 해쳤다. 필리핀 밤거리에서 만난 한 여성은 몸이 허약해서 그나마 성매매를 매일 못하고 일주일 3-4일 밖에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콘돔을 사용하지 않아 성매매 과정에서 임신도 적지 않지만 임신중절을 하지 못하고 출산하는데, 이런 아이를 마사지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뜻으로 힐롯(hilot)이라고 칭한다. 세부의 재활센터에 당시 거주하고 있던 31명 중 8명이 아이가 있었고 4명이 임신 중이었다. 세부에서 직접 인터뷰한 한 사례는 19살의 나이에 이미 3번의 출산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모두 성매매 과정에서 일어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재활센터 소장에 의하면 성매매과정에서 임신된 각종 인종의 아이들이 재활센터에서 출생했는데 한국인 핏줄의 아이도 한명 태어났고 이 아이는 성매매 여성과 함께 고향으로 돌려보냈다고 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지로는 어린 나이부터 계속되어 온 성매매, 약물 중독과 임신 후유증으로 인해 성장발달이 중지하고 심하게 말라 체력이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2. 성매매 관련 현황

가. 파타야지역 성매매여성

(1) 동기

성매매에 종사하기 되는 동기는 한 사례(사례5)가 연애 실패로 성매매에 뛰어 들었다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가 돈 벌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

이들 중 가장 경제적으로 절박한 경우는 자신의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10대에 남자와 동거하였으나 남자와 헤어지고 홀로 아이를 키워야하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에 종사하게 되었다. 아이가 있는 5사례 중에서 한 사례만이 동거 남자와 연락이 닿고 약간의 도움을 받으나 나머지는 스스로 자녀 양육비를 벌어야 한다. 태국의 경우 결혼 보다 동거가 성행하고 있는데 동거하다 헤어지는 경우 자녀들은 대부분 여성의 맙아 키우는데, 여성들은 힘들어도 자녀를 버리지 않고 스스로 키운다고 한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16세, 17세 등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되었으나 자신의 자녀에 대한 책임감과 사랑으로 자녀를 돌본다. 자녀를 보려 가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장시간 여행(6시간)을 마다하지 않는다. 한 사례는 낮부터 저녁까지 자녀를 탁아하면서 성매매에 종사한다. 이 여성은 밤 동안만이라도 자녀와 같이 지낼 수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였다. (하루에 탁아비용 150바트 한 달에 4,500바트가 든다.)

부모가 없고 함께 사는 조부모가 경제력이 없거나 고아인 경우에는 이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직업을 가지려고 해도 수입이 적어 생계유지가 어렵고 한다. 부모가 생존하는 경우에도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는 부모들은 농토가 없어 비정규적인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농토가 있는 경우에도 일 년에 한번 식량을 약간 수확하는 정도로 생계유지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고향에서 일자리가 없고 특히 어린 여성의 경우 성매매 외에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 성매매에 종사하게 되었다. 조사대상자 중에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이유로 힘들이지 않고 돈 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 다른 일은 임금이 너무 낮아 생계유지할 수 있는 액수의 돈 벌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동생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동생의 교육비를 부담하였고 특히 사례2는 자신이 17, 15, 10, 6살의 남동생 2명과 여동생 2명을 데리고 함께 살면서 동생들의 학비를 벌어 공부시키고 있었다. 자신이 10살 때부터 부모는 일하러 고향을 떠나 있었고 삼촌이 돌보았으나 그 때부터 실질적으로 자신이 동생들을 돌봐오고 있다가 파타야까지 동생들을 데리고 온 것이었다.

부모의 빚 때문에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 경우가 3사례이다. 한 사례는 부모가 두리안 재배 과수원 가지고 있는데 정부가 자금 빌려주었는데 이 빚을 갚아야 하였고, 다른 한 사례는 어머니가 농사지으면서 비료,

농약 등 사느라 빌린 돈을 갚아야하기 때문이었다. 과수원이나 농토를 가진 경우에도 농사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정부가 농촌의 불균형한 발전을 시정하기 위해 농민들에게 빌려준 자금이 빚이 되어 농민들을 압박하고 딸이 그 부담을 지고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나머지 한 사례는 부모가 텔레비전과 모터사이클을 빚으로 구입하여 이 비용을 갚아야 한다고 했다. 자본주의 산업이 제공하는 문명의 이기의 매력과 편리함으로 소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물품을 구입하고, 결국 그 빚을 어린 딸이 질 수밖에 없게 된 사례이다.

자본주의 소비문화의 덫은 대부분의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도 해당되는데, 이 여성들은 화장품, 의상, 최신 휴대전화, 모터사이클을 구입하여 이 비용을 갚기 위해 성매매를 계속 해야 하기도 하였다. (매니저 집에서 인터뷰한 날, 인터뷰가 끝나자 5명이 두 대의 모터사이클에 나누어 타고 돌아가는 것이 목격되었다.)

한 사례는 개방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하여 하루 9시간 일하였으나 월급이 8천 바트(약 24만원) 밖에 되지 않아 그만두고 그 동안 간헐적으로 하던 성매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성매매를 시작하면서 차를 샀고, 차 월부를 갚기 위해 계속해야 했는데 자본주의 소비문화가 덫에 걸려 성매매를 계속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성매매에 종사하기 위해 가난한 시골을 떠나 여기까지 오는 비용을 갚아야하는 경우도 있었다.

(2) 경위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20사례 중 반 이상(11사례)이 다른 직업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미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었고 나머지 반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였으나 너무 수입이 적어 성매매에 종사하게 되었거나 병행하여 성매매에 종사하였다.

곧바로 성매매에 유입된 경우는 이미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이웃이나 친구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성산업에 뛰어들었다. 이미 여성의 성산업 종사가 관광지역인 파타야나 방콕 근처 뿐 만 아니라 농촌지역에도 광

범위하게 잘 알려져 있어 가난한 여성 성매매 유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나머지 9사례는 가라오케, 레스토랑, 바, 호텔에서 서빙하는 일을 하거나 부엌일을 하였고, 또는 백화점 점원으로 일하거나 공장에서 일하다가 너무 수입이 적어 성산업으로 뛰어들었다. 이 경우도 대부분 이 일에 종사하는 친구의 소개로 종사하였다.

20사례 모두가 좁은 의미로 보면 스스로 성산업 종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며 인신매매를 통해 강제적으로 하게 된 경우는 없다.

(3) 가족의 태도

가족이 없는 한 사례를 제외하고 19사례 중 가족이 알고 있는 경우는 12사례이며 7사례는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는 사례는 대부분 처음에 다른 직업에 종사하다가 성매매를 하게 된 경우로 처음 종사하기 시작한 직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부모들은 알고 있다.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 이유는 싫어하거나 화를 내고, 속상해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수가 가족 특히 어머니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가족의 유일하거나 주요 생계수입원인 경우이다. Brown(2000)에 의하면 태국의 가족들은 땅을 하여금 성매매에 종사하여 가족 생계를 책임지도록 한다고 하였는데 이들 중에서도 그러한 여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은 가족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고 스스로도 가족을 먹여 살리고 동생들의 교육비를 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가족이 알거나 모르거나 이웃이 알게 되는 것을 꺼렸다. 이웃 간에 평판이 좋지 않아지기 때문에 꺼린다고 밝혔다. 이웃이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으나 조사대상자들은 이웃의 인지 여부에 대해 스스로 말할 정도로 이웃의 인지에 대해 신경을 썼다. 그러나 유입 경로에서 보듯이 친구나 이웃을 통해서 성매매산업에 유입되어 결국은 성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이웃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경제 상태

이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는 업소로는, 가라오케와 연결되어 성매매를 하는 사례는 13사례인데 이 중 프리랜서로 가라오케에서 연락이 오면서 서빙하거나 성매매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12사례이며, 가라오케에서 매일 출근하는 경우 1사례로 이 여성은 한국인이 경영하는 가라오케에 근무하였다. 두 번째로 많은 사례가 바에서 일하는 경우로 6사례이며 나머지 한 사례는 바디 마사지 업소에서 종사하였다.

조사대상자 중에 3명은 낮에 쇼핑센터(2사례)의 계산대에서 일하거나 호텔에서 서빙하는 일을 병행하고 있다. 낮에 일하고 있으나 너무 수입이 적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다.

바디 마사지업소, 가라오케, 바에 종사하는 여성들 대부분이 한 달에 10,000 내지 20,000바트 정도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버는 경우는 사례2로 한 달에 80,000바트를 번다고 응답하였다.

한번 성매매 가격은 다양한데, 600바트에서부터 2,500바트까지 흥정하여 이루어지는데, 단시간 소요되는 경우와 밤을 같이 지내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바디 마사지 비용은 1인당 1400바트이다.

조사대상자들 대부분이 자신이 이 돈을 다 갖는다고 응답했으나 가라오케의 매니저, 프로바이더로 명명하는 중간 펌프(속칭: 빠끼), 업소, 관광 가이더 등과 나누어야한다. 가이드에 의하면 ‘성매매의 경우 손님 지불 액수의 3분의1 성매매여성, 3분의2가 가이더, 매니저 또는 프로바이더(펌프), 업소 주인에게 가는 것으로 보면 정확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바의 경우 1500바트를 받을 경우 업소 주인에게 600바트를 주고(사례 20) 나머지 중에서 프로바이더에게도 주어야하며 자신은 500바트 정도를 가진다. 바디마사지에서 고객이 지불하는 돈의 대부분을 업소가 가진다. 가라오케 경우 방에서 노래할 때 같이 노는 것에 대해 손님은 30분에 10불 지불해야하나 여성은 4불정도 받고, 가라오케 걸이 성매매하는 경우 손님이 먼저 업소 주인에게 2천 바트 지불하면 나중에 업소가 여자에게 돈 지불하는 형태로 가라오케 업소 주인이 여성보다 더 많은 액수를 가진다고 한다. 그리하여 여성이 하루에 여러 차례 성

매매를 하고 한 달에 생리일을 제외하고 성매매를 매일해도 수입은 한정 된다.

성수기와 비성수기로 나뉘는데 성수기는 10월부터 2월까지이며 최고 성수기는 11월부터 1월까지이다. 이 기간에는 성매매 가격도 비싸지고 성매매 횟수도 많다. 그러나 비성수기에는 성매매할 기회가 적어, 따라서 수입도 매우 낮아 생활비를 벌기도 쉽지 않다.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조사 당시(8월)에는 성매매를 별로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사례 2를 제외하고는 모두 저축한 돈이 없었다. 또한 대부분 큰 빚은 없으나 한가한 시즌에는 수입으로 생활비도 벌지 못해 성매매 여성들끼리 서로 이자 없이 꾸거나 대금업자에게 5-10% 이자를 주고 빌리기도 한다.

자신이 가족 생계를 위한 유일한 수입원일 경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례가 가족에게 송금을 한다고 하였다. 자신의 수입 중 방값, 식대, 의상비, 화장품, 핸드폰비 등 자신의 생활비로 10,000바트 내지 15,000 바트를 쓰고 나머지는 가족에게 송금한다. 송금액은 많은 경우 5,000 바트이며 3000바트, 2000바트를 보내기도 한다. 이나마 수입이 적을 때는 못 보낸다.

(5) 어려운 점

성매매하는 어린 여성들의 절대다수가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에 종사하게 되었으나 성매매를 통해 버는 돈은 너무 적거나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여전히 가장 어려운 점이 돈 문제라고 응답하였다. 이 여성들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고향으로부터 멀리 와서 성매매에 종사하지만 결코 그 가난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두 사례만이 가족이 없어 너무 외롭다는 것,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람과 성관계하는 것 너무 힘들다고 각각 응답하였다.

(6) 성매매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의 희망

성매매에 대한 생각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할 뿐이라고 응답하였다. 돈이

필요한데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싫지만 성매매를 한다고 생각하였다. ‘정말 좋지 않은 직업으로’ ‘하기 싫어 때때로 혼자 울기도 하고’ ‘사람들이 하대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돈 때문에 할 수 없이 계속하고 있었다.

부모의 빚을 다 갚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말하는 사례의 경우에 언제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을지 요원하여 보였고, 앞으로 두 시즌, 또는 일년 만 더하고 그만 두려고 하기도 하고, 홍콩에서 가정부로 있는 어머니가 돌아오면 자신은 아이 만 키우겠다고 희망을 말하는 여성들도 그 때까지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인 것처럼 보였다. 대부분은 빨리 그만 두고 싶지만 구체적인 대책이 없었다. 다만 나이가 27세인 사례7은 돈을 빌려 곧 레스토랑을 차릴 예정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했고, 사례2는 25살이 되면 공부시키는 동생들도 어느 정도 클 것이기 때문에 그 때 쯤 그만 두려고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을 뿐이다.

이 여성들은 성산업에 유입될 당시 스스로 결정하여 주변 친구나 이웃을 통해 유입되어 어떠한 강제 계약을 맺은 바 없기 때문에 자신이 그만 두겠다고 결정하면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다. 다만 돈을 벌기 위해 이 일을 하지만 버는 돈은 대부분 당장 생활비와 가족들에게 송금 등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돈을 저축을 못하고 있어 경제적인 이유로 성산업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고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다.

태국에서는 나이든 성매매 여성들을 흔히 볼 수 있고 남자와 동거하여 가정을 꾸리는 경우에도 아르바이트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많다고 한다. 연구자가 방문했던 방콕의 한 바디 마사지 업소에는 대부분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여성들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었다. 성매수자의 기호에 따라 나이가 많은 여성들도 성매매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있고,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릴 때부터 성매매를 해도 충분한 돈을 저축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여성들이 성매매업소와 강제적 계약관계를 맺지 않고 그만 두려고 하면 그만 둘 수 있는 것은 성매매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잉하여 여성들을 굳이 강제 계약으로 묶어들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태국은 오랜 동안 관광산업이 주요 산업이 되어 다른 산업에 종사할 기회가 없는 여성들이 성매매 쉽게 유입되고 있다. 가이드가 ‘성매매 할 수 있는

나이 또래에 있는 태국의 전여성이 성매매에 종사한다고 보면 된다'고 주장할 정도로 태국 여성들의 외국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국민이 금욕을 강조하는 불교를 신앙으로 삼는 국가에서 성매매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 여성들이 꿈꾸는 희망은 자신들의 생활에서 경험하는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서비스업의 주인이 되는 것이 가장 큰 꿈이었다. 대부분이 바, 가라오케, 레스토랑의 주인이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다. 자신들이 종사하는 업소를 열어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돈을 벌고 싶어 한다. 자신들이 성매매로 번 돈을 쉽게 가져가는 주인을 보면서 자신들도 그렇게 돈을 벌고 싶은 꿈을 가진다.

그 외에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물품, 즉 옷가게를 하고 싶어 옷 만드는 법을 배우면서 꿈꾸기도 하며, 화장법과 미용 기술을 배워 미용실을 열고 싶어 한다. 그러나 대비책이나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3분의 1(7사례) 가량은 아무런 희망이 없으며 누구의 도움도 기대하지 못하고 언제 그만 두게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나마 별다른 계획을 세우지 못하였다.

그런데 사례2에 의하면 이 직업에 종사하는 모든 여자들의 꿈은 생계 유지의 책임을 지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례19의 경우 고향 마을에 사는 한 여자가 외국사람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집짓는 것 보고 자신도 언제가는 그럴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사례 1의 친구의 경우 한국남자를 만나 임신하자 그 남자가 결혼할 줄 알았는데 버렸다고 분개하였는데, 이는 사례1의 친구만의 좌절이 아니라 성매매 여성들의 희망을 짓밟는 것이 된 것이었다. 사례1이 인터뷰 할 때 한국남성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 부족하여 다시 술에 만취하여 통역자에게 전화하여 한국남자에 대한 비난을 한 시간이나 계속할 정도로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태국남자들은 자신의 수입을 아내에게 다 주지 않으나 한국남자는 자신의 수입을 모두 아내에게 맡긴다고

알려져 아내를 신뢰하는 남자로 태국여성들이 결혼 상대자로 선호하지만 실지로 그 꿈을 이루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필리핀 마닐라, 세부지역 성매매여성 현황

(1) 동기 및 경위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은 자신이 성매매 일을 하게 된 것이 가난 때문이라고 했다. 농업과 어업, 관광업 등외에 별다른 산업이 없어 일자리가 부족하여 실업률이 높은 필리핀에서 어린 여성들이 가난한 가족이나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는 거의 없어, 성매매는 가난한 가족의 딸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자리가 되고 있다.

또한 필리핀에서는 10대 소녀들의 임신율¹⁵⁾이 높은데 동거 남자가 경제력이 없거나 남자와 헤어져 자녀양육의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홀로의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생계유지가 어려워 동거하는 남자가 권유하기도 한다. 파트너가 펌프의 역할을 하면서 성매매를 하도록 독려한 경우가 마닐라에서 2사례 있었고 전 파트너 (자신의 아이의 아버지)가 펌프 역할을 한 경우도 1 사례 있었다. 마닐라 거리에서 만난 펌프도 남편이 미용사이나 방값이나 생활비를 벌지 못해 자신이 성매매를 하였고, 성매매가 잘 안되어 펌프로 전환하였다고 하였다.

친구나, 주위의 친척(언니, 사촌 등)이나 가까운 이웃이 도시에서 좋은 직장을 알선해주겠다는 꼬임에 빠져 고향을 떠나 도시로 나왔으나 도시에서도 일자리 찾는 것은 쉽지 않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성매매의 길로 스스로 들어서거나, 강제로 사창가에 팔려나가는 경우가 많다. 주로 가난한 민다나오섬에서 성매매 알선자들은 부모를 꾀여서 선금을 주고 어린 소녀들을 세부나 다른 지역으로 데리고 와서 인신매매하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인신매매자는 평소에 친근한

15) 필리핀 The David and Lucile Packard Foundation/ Ecpat Philippines(2005년) 공동연구 결과에 의하면 필리핀 여성 중 17세 7%, 18세 11.9%, 19세 23.5% 가 임신 경험이 있으며 임신은 동거를 통해 78.6%가 임신을 하였고, 17.6%가 동거는 하지 않았으나 성관계에서 피임을 하지 않아 임신 하였고 조사 당시에 15-19세의 조사대상자 중 5.1%가 임신 종이었다.

이웃이나 친척, 친구들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의심 없이 딸을 보낸다는 것이다. 한 사례는 이웃이 부모에게는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는 일자리 알선해 준다고 속이고 사창가로 강제로 끌려가서 16살 때부터 성매매에 종사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부모가 없거나 돌봐주지 않는 어린 소녀의 경우 인신매매단의 표적이 되고 있다.

조사대상자들 중 일부는 결손가정으로 인해 쉽게 성매매에 진입하게 되었다. 한 사례의 경우를 들어 보면, 아버지는 알콜 중독이고 어머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정부로 취업하였는데 3형제의 막내인 자신을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고 인신매매단의 꼬임에 빠져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고 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이미 성매매에 종사하는 친구에게 하소연하거나 찾아가서 스스로 또는 강제적으로 성매매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스스로 성매수자를 만날 수 있는迪斯코 넥으로 친구와 함께 나가 성매매를 시작한 경우가 있었고 아버지의 강간을 피해 집을 나와 할 수 있는 일이 성매매 밖에 없어 친구에게 부탁하여 종사하기 시작했던 경우도 있었다. 또한 마닐라에서 세부로 친구를 찾아왔다가 집창촌 포주에게 가진 돈도 다 뺏기도 감금되어 성매매에 강제적으로 진입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인신매매되어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하기 시작하면, 멀리 집에서 떨어져 나와 지리적으로 낯설고 가진 돈도 없어 감시를 피해 홀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하였다. 세부에서 인터뷰한 한 10대 여성은 집창촌에서 벗어나 컴퓨터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학교에 가고 싶지만 포주와 펌프가 자신을 다시 납치할까봐 두려워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었다.

(2) 가족의 태도

부모들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는 가족들과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고 가족들이 자신에 대해 상관하지 않으며 따라서 가족들이 자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이유로 가족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족과 연관을 가지고 있는 조사대상자들은 자신들의 일에 대해

가족들이 알지 못하고, 만약 물어본다면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기타 이유를 제시한다고 했다. 이들 가족들은, 대부분 자신의 자녀들이 "좋고 명예로운 직업"에 종사(예: 웨이터/웨이트리스, 가게 점원, 계산대 점원, 패스트푸드 점원, 판매원, 안마사 혹은 학생)한다고 생각하였다.

가족들이 조사대상자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의 반응은 자신의 자녀가 성매매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더럽고 나쁜 일에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증오한다고 응답하였는데, 한 사례는 자녀가 성매매와 관련된 일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 사례의 부모는 자신을 집에서 쫓아냈다고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매매여성들은 자신의 부모나 가족들이 자신들이 처한 실제 상황에 대해 알게 되더라도 그들의 부모가 자신들에게 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했다. 즉 부모가 가진 것이 없고 도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경제적인 뒷받침을 하거나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게 할 수 없고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한 사례는 인신매매단이 아버지에게 레스토랑에서 일자리 알선한다고 속이고 자신을 실제로는 사창가로 끌고 갔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못했으나 이제 알게 되었고, 그러나 알콜 중독자인 아버지는 가난해서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어 아무 말 안했다고 했다. 부모들은 자녀가 성매매를 하고 있는 알아도 성매매를 그만두게 되면 가족들이 굶게 되고 피해자가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귀찮게 하지 않는 이상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쉽게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은 자신의 일을 숨기고 있고, 현재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부모가 알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냐고 물어보면 변명을 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조사대상자들은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다는 말을 한다는 것에 수치스러움을 느낀다고 한다. 따라서 조사대상자 본인 역시 자신의 부모가 도시에서 번듯한 직장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주기를 바란다.

다만 전체 조사대상자 중 일부(8명)는 자신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일자리를 찾아서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벗어나거나 가족과 연락이

끊긴 경우 가족을 찾아 집에 돌아가기를 희망하였다. 또 다른 일부(7명)는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들을 이해하고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를 기대하였고 또한 자신의 자녀를 가족들이 돌보아주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필리핀의 경우 성매매 여성은 가족으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고 가난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성매매에 종사하였으나, 이 여성들은 가족간의 유대가 희박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경우에도 가족이 성매매여성들을 지지하고 도움을 주기 보다는 용납하지 못하고 수치스러워 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경제상태

지역마다 성매매의 비용은 각기 달랐고 성매매자가 같은 비율로 각기 달랐다. 마닐라 시내 Malate의 경우 1회 성매매가 1000페소(2만원)에서 많게는 5000페소(10만원)까지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비용은 3000페소(6만원)이다. 포주는 이 중에 50%를 가지게 된다. 이외 추가적으로 성매수자가 지불하면 핌프인 “마마상”이나 업소 (“바”)에게 돌아간다.

Pasig의 경우 1회 성매매에서 1500페소(약3만원)에서 많게는 2500페소(5만원)까지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여성에게 돌아가는 액수는 500페소(1만원)에서 800페소(1만6천원) 정도이다. 성매매여성보다 더 많은 금액이 포주, 핌프(기동서방)이나 기타 알선자들에게 할당된다. Timog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이 적정한 최근에는 1000페소(2만원)에서 1500페소(3만원) 정도이며 포주는 300에서 500페소정도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포주 없이 성매매하는 경우 500페소(1만원) 정도 받는다. Quezon 거리 길가의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은 포주 없이 자유로 일을 했는데 1회 성매매에 500에서 1500페소가량의 돈을 받았다. Kamuning의 바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이 1500페소 중에서 1000페소를 가이드비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바에 상납을 하였다. Cubao 및 기타지역에서는, 가격대가 1000페소에서 3000페소로 다양하였으며 포주가 고객을 데려올 경우에는

50%를 지불해야 한다. 마닐라 밤거리에서 만난 한 여성은 포주와 함께 일하는데 결국 한달에 2만페소 정도의 수입 밖에 올리지 못한다고 한다.

세부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은 단시간 집창촌의 경우 성매매 행위에서 500페소(1만원) 정도 받는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500페소를 받아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핌프 200페소, 업주 100페소, 장소 100페소를 지불하고 나면 100페소에 불과하여 돈을 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매매 1회 가격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성매매에서 받은 수입도 핌프와 업소주인과 나누기 때문에 이들이 한달에 벌어들이는 돈은 적다. 이 수입도 집창촌에 있는 경우 생활비등으로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다 지출된다. 수입도 업소 주인이 보관을 명목으로 다가지고 있는데, 한 여성은 자신의 수입을 달라고 요구하여 거의 ‘맞아 죽을 뻔 했다’고 했다.

첫 번 처녀일 때 성매매하는 경우 비싼 값으로 거래되는데 8만페소까지 거래된다. 한 여성의 경우 자신의 성매매 첫 번째 상대는 중국 남성이었는데 이 남성은 업소 주인에게에게 5,5000페소를 지불하였으나 자신에게 돌아온 돈은 한 푼도 없었다고 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수입의 대부분을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출하고 있다. 조사대상자중 자녀가 있는 경우, 수입의 대부분이 아이의 우유와 음식을 위해 쓰인다. 마닐라 거리에서 만난 한 여성은 16살 고등학교 때 동급생 친구와 관계를 맺어 임신하여 낳은 아이(5살) 홀로 기르고 있는데 아이가 천식과 심장병 앓고 있는데 아이 병원비는 한달에 1만 내지 1만5천페소가 들어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다. 한동안 살인을 하여 도피해온 일본 야쿠자 조직원과 2달 동거했는데 두 번이나 한달 병원비 데어 주었다고 감사하게 생각하였다. 그 외에 집 임대료, 음식, 옷과 액세서리 또는 담배, 술, 약물과 같은 기타 생필품을 구매하는데 쓴다.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의 수입은 일상적인 기본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특히 남자친구나 동거인을 부양하기 위해 쓰는 경우도 있어 고정적인 파트너가 있는 경우에도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었다.

세부지역 조사대상자중 3명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비를 낸다고 하였고, 다른 2명은 세부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한국인 남자친구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들은 이 때문에 빚까지 지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공부를 마치고 졸업을 한 뒤 결혼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마닐라의 한 사례의 경우 경찰단속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놀물을 건낸다고 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저축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성매매를 하지만 성매매를 통해 저축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빚을 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사대상자의 41%가 빚을 지고 있었다. 빚 액수는 적게는 5,000 폐소에서 많게는 그녀가 갚을 수 없을 만큼 많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고 대답했다.

빚을 지게 된 이유는 지속적인 불황으로 인해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못 미치는 적은 수입으로 빚을 지게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자녀 양육, 형제·자매 및 부모 부양, 임대료, 음식 등의 생활비, 출산비 등의 의료비와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학비, 남자 친구 학비 부담 등으로 빚을 졌다. 조사대상자에게 수입은 항상 부족하며, 늘 적자에 허덕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집창촌에서 기거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 필수품인 음식, 옷, 및 방 임대 등이 시세에 비해 3배 정도나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늘 수입 보다 지출이 많아 빚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점점 노예화되어 갈 수 밖에 없다.

(4) 어려운 점

그들의 삶 중 가장 힘든 점은 한결같이 가난이었다. 가난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가족이 먹을 음식과 그들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해서 성매매를 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하였다. 한 조사대상자는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강도를 생각해보았으나, 겁이 나서 하지 못했다고까지 했다

둘째, 이외에는 집과 가족에게서 떨어져, 집이 없는 것과 향수에 대한 고통을 느낀다고 했다. 일부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결핍되었던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을 그리워했고, 자신들을 이해해주고 지도해주는 정신적인 지지를 받고 싶어 했다.

셋째, 성매매 그 자체가 어려운데, 특히 그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성관계를 하는 동안 학대하는 고객들을 만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 고객이 음부에 플라스틱 병을 넣었다는 조사대상자는 그 때문에 악몽에 시달린다고 했다. 자신이 싫어하는 성적 행동들을 강요당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다. 예를 들어 오랄섹스, 애널 섹스, 또는 항문에 키스를 하거나 나체로 춤을 추는 등 고객들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행위들을 말한다. 조사대상자들은 밤새 깨어 있어야 함으로 수면 부족으로 인한 괴로움 또한 적지 않다는 것이다.

성매매를 하는데 있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매매를 하는 일 자체에 대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검문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화대를 적거 주는 것에도 불만을 표시하였다.

넷째, 어린 소녀들의 대부분은 기초생활에 대한 교육과 인생에 대한 카운셀링이 필요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아 예를 들면 아플 때 어떤 약을 먹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납치되어 집단 강간을 당했을 때의 구조 방법 등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어 하였다. 이 여성들은 성매매를 한 밤중에서 길거리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에 처하고 있으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것 같았다. 새벽 2시경 마닐라에서 인터뷰한 성매매 여성은 연구자에게 장신구를 빼라고 조언을 해주었고 자신은 그 달에만 휴대폰을 두개나 탈취당했다고 했다.

다섯째, 성매매에서 가장 혼한 걱정인 전염성 성병의 감염 같은 그들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 한 사례는 한국인 고객과 한 애널 섹스 때문에 전염성 성병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5) 성매매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의 희망

조사대상자들은 대부분은 자신의 일이 나쁜 일이며 더럽고, 지저분하며, 부끄럽다고 했다. 여러 남자를 상대함에 있어 건강상 좋지 않고, 주야로 일하므로 힘들고, 성매매란 자신의 인생을 망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은 돈을 달리 벌 줄을 몰라 어쩔 수 없이 자신과

가족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돈을 벌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세부의 경우 25사례 중 2사례만이 그만 둘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들은 몸이 아파서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필리핀 여성들의 경우 몸이 아프거나 임신하여 아이를 낳게 되지 않는 한 가난 때문에 성매매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

그래도 일부는 성매매 직업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섹스의 쾌감과 그들의 몸이 원하기 때문에 즐긴다고 했다. 또 다른 조사대상자는 자신의 파트너 이외의 남자들과 섹스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일을 즐긴다고 했다. 그 이외에도 항상 돈을 벌수 있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저 누워있기만 하면 된다’는 이유로 일이 즐겁고 쉽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조사대상자들은 그래도 미래에 대한 꿈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첫째 전문직(간호사)으로 외국에서 취업하러 나가는 것이다. 이를 여성들은 해외취업 가는 것이 큰 희망이나 필리핀 여성들이 흔히 종사하는 가정부나 서비스업의 직업을 가지기 보다는 해외에서 전문직에 종사하고 싶어 한다. 몇몇 조사대상자들은 한국에서 공장에 취업하고 싶다고 어떻게 취업할 수 없느냐고 되묻기도 하였다.

둘째로는 더 나은 직업을 가져서 자녀가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것을 바란다고 했다. 고향으로 돌아가 선생님이 되거나, 주부가 되어 마켓에서 생필품을 파는 코너와 같은 장사를 하면서 자신의 집을 지어 자신과 그녀의 가족과 자녀가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미래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다만 어떻든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자신이나 가족들을 희망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실현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희망을 잃지 않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미래를 위해서 진취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 소 결

태국여성들은 대부분 성매매를 선택하였고 자발적으로 성산업에 진입하였다. 성매매여성은 수요 보다 공급이 넘쳐나 성산업은 인위적으로나 강제적으로 여성들을 모집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공급 과잉은 성매매 여성들이 성산업 종사를 그만 두고자 할 경우에도 쉽사리 그만 들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벗어날 길 없는 가난과 소비문화는 여성들을 성산업에 끌어 두고 있다. 이 여성들이 누리고 있는 자율성은 선택의 여지없다.

부모들도 자신의 딸의 성매매를 익히 잘 알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도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성매매를 통해 빚을 갚고, 가전제품이나 모터사이클을 살 수 있고 새 집을 지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가부장제 하에서 딸이기 때문에 가족을 돌봐야하고 따라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가부장제는 여성은 남성의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자본주의 사회는 여성을 찬값으로 여성의 몸을 팔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경제가 지탱되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도 가난 때문에 여성들이 성매매에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태국 보다 상황은 훨씬 더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필리핀에서는 인신매매에 의한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고 집결지에서 성매매는 강제적이고 더 착취적이었다. 성매매자들은 비용도 낮고 (수입도 적은데) 반해 빚은 더 많아 경제적으로도 열악하다. 또한 가족과의 유대도 적고 가족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어 정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건강 문제도 심각하여 콘돔 사용이 철저하지 못해 어린 나이에 성병의 위험에 처해있으며 성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임신으로 인한 자녀양육의 부담까지 지게 된다. 태국의 경우 태국남성과의 동거로 인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데 필리핀의 경우 자녀를 가진 경우가 훨씬 많았으며, 자녀는 필리핀남자와의 동거의 결과로 출산하기도 하지만 성매매 과정에서 태어난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경우도 흔했다.

태국과 필리핀 모두 가난이 성매매를 지속하도록 묶고 있을 뿐 아니라 몸이 망가질 때까지 성매매를 해야 하도록 강제당하고 있어 자율성이 상실되어 노예처럼 묶여 있었다.

필리핀 경제가 피폐하여 부모는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보살핌이나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자신의 자녀가 인신매매를 통해 성매매에 진입하는 것을 방치할 수밖에 없고, 남자파트너도 자신의 여자파트너의 성매매를 지켜볼 수밖에 없어 가족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여성들은 어린 나이부터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가고 있다.

V. 성매매하는 한국 남성들

1. 태국

1980년대 후반에 부분적으로 해외여행 자유화 정책이 실시한 후 태국은 이동하기 쉽고 가까운 관광지의 하나로 우리나라 관광객이 선호하는 지역이 되었다. 신혼여행, 배낭여행 등 개별적인 관광객과 졸업여행, 일반 단체 관광객 등이 많이 찾는 지역이다.

한국남성 관광객은 단체여행객이 제일 많고, 배낭족과 홀로 여러 차례 여행 오는 관광객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단체관광을 온 한국남성들은 주로 가라오케와 바디마사지업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에 의하면 한국 남자의 경우 전문직종의 사람들과 연예인등이 성매매 심하게 요구한다고 한다.

가라오케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사대상자들은 자신의 고객의 50% 정도가 한국 남자라고 대답한 경우가 가장 많고 (7사례) 한 달에 10여명 정도로 상대했다는 경우가 2사례이다. 바디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사례1과 가라오케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사례2는 한국남자와 상대를 상당히 많이 했으며 하루에 한번 이상 하는 경우도 많다고 대답하였다.

바를 근거지로 하여 종사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한국남자가 자신의 고객의 20%정도이며 국적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실지로는 더 많을지도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바의 경우에는 단체관광객 보다 개인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한국남자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개인적으로 관광을 오는 유럽관광객들이 주로 바를 이용한다.

약 반수가 한국말을 몇 마디라도 알고 있거나 약간 이해한다고 응답했는데, 이들이 알고 있는 한국말은 ‘당신’, ‘몇 살이냐?’, ‘이름이 뭐냐?’, ‘안녕하세요?’, ‘예쁘다’, ‘오빠’,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지금’ 등의 단어들로 기본적인 인사말과 성매매 시에 소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단어를 알고 있었다. 이를 통해서도 파타야 지역에서 한국남성들의 성매매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지 호텔 로비에서 밤 10시경 7-8명의 한국남자들이 가이드를 따라 밖으로 나가는 모습 쉽게 볼 수 있다. 새벽 2시경 호텔 근처 한국음식점에 한국남자 5-6명이 태국여성을 각자 한명씩 데리고 들어와 음식을 먹고 각각 나가는 모습도 쉽게 목격되었다. 또한 오전 호텔 로비에서 한국인 가이드가 한국 사람과 성관계하고 나오는 태국 여성(20대 후반)에게 돈 주는 모습 목격하였다. 파타야에서 한국 남성들이 성매매과 함께 지내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국남성에 대해서 약 반수에 해당하는 9사례가 대부분이 친절하고 특별하게 나쁜 점이 없다고 말했고, 돈에 크게 구애되지 않고 특히 나이 많은 사람 어린 여자에게 돈 아낌없이 쓴다고 말했다. 2사례도 다른 외국인과 별로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였고 나이가 많은 사례7의 경우 손님이 적은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가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조사대상자 중 4분의 3이상(16사례)이 한국남자 전체 또는 일부 한국남자에 대해 비난하였다. 한국남성에 대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비난하는 것은 첫째, 콘돔사용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사례 5는 왜 콘돔사용을 거부하는지 그 이유를 인터뷰하는 연구자에게 되물어보았다. 콘돔을 사용하지 않으면 많은 경우 여성들이 성관계를 거부하는데, 한국 남성들은 이에 대해 매우 거칠게 응대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한국남성들은 대체로 시끄럽고 행동이 공격적이고 거칠고 자신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무시한다고 비난하였다. 한 사례는 술 마시고 때리려고 하여 도망 나온 경우도 있었다. 이 여성들은 성산업에 종사하지만 최소한의 존중 받기를 원하지만 한국남자들은 너무 심하게 대한다는 것이다.

한국남성을 비난하는 세 번째 이유는 마약 문제이다. 남성 자신이 마약을 하고 여성에게도 마약을하도록 강권한다는 것이다. 특히 배낭족과 개별적으로 반복해서 오는 관광객 남성들은 마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성매매여성에게도 마약을 같이 하기를 강제로 권하고, 마약하는 것을 거부하면 화를 낸다고 한다. 사용하는 마약은 마리화나와 아이시 등이라고 마약 이름까지 언급하였다.

네 번째로 한국남성을 비난하는 이유는 성적으로 요구사항이 많다는 것이다. 오랄섹스, 애널 섹스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면 화내어서 힘들다고 말했다. 나이 어린 이 여성들은 성매매하지만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성적 서비

스는 하지만 음란한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크고 음란한 농담이나 과도한 요구 싫어한다.

그 밖에 한국남자는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사례1은 인터뷰가 끝나고 인터뷰를 통역한 태국인 가이드에게 밤늦게 전화해서 한국남자들에 대한 비난을 펴부었다. 술에 취하여 계속 한국남자들 더럽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오줌을 받아 마시기까지 하였다고 말했다.) 특히 자신의 동료가 한국남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가졌으나 임신을 하자 남자가 떠나버렸다고 비난을 하면서 ‘한국남자들 겉보기는 준수하지만 겉보기와는 다르고 상당히 ’더티(dirty)’하고 무책임하다’고 비난하였다.

한국남성의 특징으로 나이 든 남자들의 경우 미성년자 선호하며 어린 소녀들에게 기꺼이 많은 돈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가이드들에게 여대생 소개 부탁하여 알선, 보통 거리 소녀 보다 3-4배 지불하기도 한다. 이는 어린 소녀에 대한 선호는 어린 소녀와 성관계를 하면 나이든 남성들이 음양의 원리에 의해 회춘한다는 근거 없는 믿음에 기반하며 또한 성관계를 많이 하지 않은 ‘순수한’ 여성을 원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가이드에 의하면 태국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관심이 없었으나 텔레비전 드라마 대장금이 방송되었는데 당시 태국 텔레비전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보이면서 비로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대장금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성매매 상대자로서 한국남성에 대한 생각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로 연결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필리핀

필리핀의 경우, 2006년 3월 말까지 필리핀을 찾은 한국방문객은 135,375명으로 전년대비 27.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¹⁶⁾ 한국인들이 미국 방문객과 일본인 방문객을 넘어서 필리핀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되었다. 이러한 필리핀의 ‘한국인 열풍’은 영어 연수자와 신혼 여행객, 가족관

16) 「필리핀 관광설명회 및 미니 트래블 마트」 2006.6.7 서울힐튼호텔, 필리핀관광청 발언

광객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에는 50~60대 퇴직자의 '은퇴 이민자'로 매력까지 더해져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그 중 한국인은 세부지역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5년 9월말 까지 세부를 찾아온 27만 명의 외국인 중 한국인만 9만 3000명이라고 한다.¹⁷⁾ 또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비자야 중부의 해변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 명소이며 보라카이, 보홀, 두마게테, 바콜로드, 다바오도 지속적으로 한국인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그리고 세부시에만 약 2천명의 한국교포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학생이다.¹⁸⁾

한국인 관광객들은 2000년도부터 지역의 여성이나 소녀들을 상대로 성적 서비스를 구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2005년경부터 한국인 남성들을 상대하기 시작하였다고 응답했다. 세부지역 성매매여성 쉼터의 관장은 2004년 9월 우리나라에서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어 국내에서 성매매가 불법으로 더 강력하게 단속되었다는 말을 듣고 왜 한국 사람들에 의한 성매매가 왜 갑자기 늘어났는지 의아했는데 이제야 이해가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이 발효되고 난 이후에 필리핀에서 한국 남성에 의해 성매수가 현저히 늘어났을 개연성이 크다.

한국인 고객은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첫째가 단기간 방문하는 관광객이고 둘째가 현지 유학 또는 어학연수생들이다. 년간 4만 명의 학생들이 필리핀을 방문하는데 그 중 일부가 성매수를 하고 있다. 성매매 여성들에 의하면 17세부터 18세 19세 등의 어린 나이의 학생과도 성매매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한국남성들은 어린 소녀들을 선호하는데 이는 젊은 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나이 또래의 여성과 성매매를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거나 나이 든 남성들은 에이즈등 성병의 위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서 일 것이라고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 활동을 벌이는 활동가들은 추정하였다.

마닐라 한 성매매여성은 한국 남자 학생들을 길거리에서 유혹하면 무조건 'No, No'라고 한다고 말하여, 한국 남학생들은 성매매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일부 학생들은 이러한 것에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17) 코리아타임스 타임스미디어(<http://www.timesmedia.co.kr>) 커뮤니티 최신뉴스 “놀러 배우러 아예 살려한국인 遷 만명꼴 필리핀 몰려간다”

18) “한국 남성의 아동·청소년 대상 해외 성매매 관광 실태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자료집, 2005.10.31, 서울여성플라자 1층 국제회의장 -(사)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ECPAT Korea pp.21~22

한국인 남성들은 대부분 바나 마사지 혹은 가라오케나 클럽을 통해서 성매매를 하였고 일부는 시내에서 디스코 클럽 등에서 만나 성매매를 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는 친구를 통해서 한국인 고객을 만나거나 만남의 장소 또는 쇼핑몰을 이용한다. 하지만, 대부분 포주가 가장 흔히 그들의 고객을 조사대상자들에게 인도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가이드를 따라 무리 지어 업소를 방문을 해서 호텔이나 기타의 장소로 데려가 성매매를 한다고 하였다. 세부의 사례의 경우 자신이 일했던 업소는 200명의 성매매여성이 있는 집창촌이었는데, 한국사람들은 주로 무리를 지어 와서 성매매여성을 선택하여 성매매를 했다고 한다.

마닐라 시내에서 조사한 71명 중 59명(83%)의 조사대상자들이 한국인을 고객으로 맞은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한국인 고객과 함께 하는 시간은 고객들이 흥정하기 나름이라고 했다. 한국인 관광객들과 친분을 쌓는 경우에는, 단골이 되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고 했다. 집창촌에서 한국인에 의해서 호텔이나 관광에 동반하기 위해서 데려가지는 여자들은 3일에서 길게는 5일까지 함께 한다고 했다. 또한 한국인들은 어린 여자나 고객 자신과 같은 나이 또래의 소년들을 좋아한다고 했다(Malate 지역). 한국대학생들의 동성애 성매매도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학연수생이나 유학생의 경우 간헐적인 성매매는 물론,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거나 현지처처럼 같이 동거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사당시 현재 한국인 유학생이나 연수생과 같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현지처처럼 관계를 맺는 경우가 3사례가 있었고 경험이 있었던 1사례가 있었다.

한 사례는 성매매를 통해서 아이가 있고 재활센터에 밀려 기르고 있는 여성으로, 8개월 째 주말마다 Southern Philippine University에 유학 온 한국유학생과 같이 지내는 경우이다. 이 여성은 인터뷰 당시 한글이 쓰여진 청바지를 입고 있으면서 앞으로 이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으로 가는 것이 꿈이었다. 두 사례는 현지처와 같이 동거하는데 성매매를 통해서 번 돈으로 한국남자의 뒷바라지 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빚까지 지고 있었다. 이 여성들도 한국남자가 공부를 끝내고 돌아갈 때 결혼해서 한국으로 갈 꿈에 부풀어 있었다. 한 사례는 한국 유학생과 6개월 동거한 경험이 있는데 이 여성은 ‘여보 사랑해’, ‘뽀뽀해 줘’, ‘죽을래’ 등의 한국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한국 남성과의 관계에 대해 좋게 기억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한국 유학생과 동거했던 경우인데, ‘그 때가 좋았다’고 회상하였다.

또한 한국 남성들은 점잖고 매너 있으며, 돈에 후하고, 똑똑하고 자신감이 넘친다. 한국인들은 감미롭고 말상대를 잘해주며, 마음에 들면 팁을 후하게 준다고 했다(Kamuning과 Cubao지역). 또한 골프장 캐디로 골프 여행온 한국 남성들과 성매매를 할 때, 한국 남성들이 향수, 시계 등을 주었고 옷도 사주었다고 기억하기도 하였다.

마닐라에서 만난 한 여성은 자신의 친구의 사례를 들어 한국 남자들이 좋다고 말했다. 즉 친구가 은행원인 한국남자(최씨라고 기억함)와 여자 친정 식구들을 위해 집도 사주고, 매달 생활비도 주면서 결혼할 예정이었으나 임신중 교통사고로 자신의 친구가 죽었는데, 죽었을 때는 한국에서 와서 장례비용 들여 장례식 치러주었고 자신에게도 1천바트 그냥 주었다면서 한국 남자들이 좋다고 말해주었다.

그러나 마닐라 시내의 한국인을 고객으로 맞은 적이 있는 대부분이(59명 중 40명, 68%) 한국인 고객들이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피해를 주었다고 믿는다. 첫째, 한국남성은 돈에 인색하다는 것이다. 성매매자들 사이에 한국인 남성을 ‘보리캇’이라고 칭하는데 돈이 많으나 돈에 인색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돈을 조금만 내고 어린 여자들을 상대로 섹스에 집착을 하고 서비스에 만족을 하지 않으면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 또한 자신들을 싸구려 취급을 하고 대부분 팁을 주지 않는다 (Timog지역).

둘째, 대부분의 한국인 고객들은 매정하고 시끄러우며 술이 취해있다고 했다. 한국인들은 쉽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나쁜 단어들을 쓰고 폭력을 행사한다 (Malate, Pasig, Quezon Avenue 및 Cubao지역) Malate지역의 조사대상자는 한국인 관광객에게 이미 견딜 수 없을 만큼 섹스를 했다고 말하자 그녀를 폭행했고 Quezon Avenue의 한 피해자는 팔을 세계 잡혀서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한다. 세부지역의 경우, 25명 중 8명이 한국남성들은 자신들을 소유물이나 성노예처럼 대우하였고, 자신들을 비웃거나 거칠게 대했다고 불평하였다.

셋째, 한국 남성들은 콘돔 쓰기를 거부하고 비정상적인 섹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하였다고 한다. 섹스를 가지기 전에 나체로 춤추기, 노래하기 등에서부터 그룹 섹스, 오랄 섹스, 자위, 애널 섹스 등을 강요하였다고 한다. 세부 지역 조사자 25명 중 16명이 성기에 플라스틱 병을 집어넣는 등 한국 남성들이 새티스적인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여러 차례 성행위를 강요하였다고 말했다.

자신은 성매매를 하지만 어느 정도는 존중받기를 원하는데 한국 남성들은 다른 외국인들과는 달리 성매매자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갑작스럽게 섹스를 시작하거나(Malate지역), 멘스를 하는 기간에도 한국인 고객에게 섹스를 강요당해, 자신을 마치 "돼지나 개"처럼 대하는 것으로 느꼈다고 한다(Pasig지역). 이들은 한국인이 하등 동물이나 동물적인 사고방식으로 섹스 행위에 임한다고 했다. 또한 일부의 한국인들은 X-등급의 포르노 영화를 가져와 그러한 행위를 여자들에게 강요했고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것들이 피해자들을 힘없고 경멸스럽게 느끼게 했다고 하면서 자신들도 어느 정도의 존중 받을 가치는 있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 성매매여성에게 마약 중개를 부탁하여, 마약 복용을 하면서 성매매여성에게 마약복용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3. 소 결

성매수를 하는 한국남성들은 태국의 경우 단체관광객과 배낭족 등 일시적인 여행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필리핀의 경우 골프 및 일반관광객들은 물론 어학연수와 유학 온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남학생들도 주요 성매수자이다. 중장년의 남성은 물론이고 젊은 학생들이 성매매의 주요한 매수자인 것은 심각한 도덕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젊은 학생들이 성매매 문화에 탐닉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성매수에 드는 비용이 적게는 불과 1만원으로도 가능하여 돈이 풍족하지 못한 유학생들도 필리핀에서는 성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나이 많은 남성 관광객들은 특히 미성년의 어린 소녀들을 선호하고 필리핀의 유학생의 경우에도 자신과 비슷하거나 어린 상대를 구하여 주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연수나 유학 기간 동안 성매매여성을 현지처로 동거하다 헤어지고 한다. 미리 일시적인 현지처임을 알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한국 남성과 결혼하기를 기대하고, 더욱이 성매매한 돈으로 뒷바라지까지 하고 있는 경우, 과연 그 남학생들이 그 여성과 결혼해서 한국으로 데리고 올지는 미지수이다. 그 여성의 기대와는 달리 홀로 귀국할 경우 그 여성은 착취하고 이용한 것으로 많은 상처를 주게 될 것이 자명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성매매 과정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성매매 과정에서 임신과 출산이 드물지 않는 필리핀에서 아버지를 모르는 한국계 아이도 태어나 아이 어머니가 기르고 있는 사례가 있었는데, 성매매 과정을 통해 남성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핏줄이 외국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 생명과 여성에게 잔인한 형벌을 씌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

또한 필리핀의 경우 콘돔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성매매자가 하루에도 10여 차례까지 성매매를 하고 있어 성병의 감염에 노출되어 있다. 성매수자의 마약 복용도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태국과 필리핀 두 지역 모두에서 한국 성매수자가 마약을 복용하고 성매매여성에게도 복용을 강요하여, 성매수자의 마약 복용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성매매 여성들은 한국남성들에 대해 일부는 호감을 가지고 있으나 태국이나 필리핀 모두에서 대부분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였다. 태국의 경우 성매매자들은 한결같이 한국남성들이 콘돔을 사용하지 않으려 하는 것에 불만을 나타내었다. 유럽 남성들은 콘돔 사용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데 비해 쌍방이 성병의 위험에 노출되는데도 사용을 기피하는 것을 이해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한국남성들은 거칠고 공격적이라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성병 예방에 무관심하여 콘돔 쓰기를 꺼리고, 성적으로도 과도하거나 비정상적인 요구를 많이 하여 성매매여성들의 수치심을 유발하고 또한 상대 여성들을 무시하고 거칠게 다루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성매매여성들은 신체적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는 것으로 들어났다. 또한 필리핀의 경우 유학생들이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하여 대부분 돈에 인색하다고 정평이 나 있다.

한국인 남성 성매수자들은 필리핀과 태국 두 나라 모두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히 필리핀에서는 한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만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VI. 결론 및 제안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여행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태국과 필리핀은 싸고 손쉽게 관광갈 수 있는 나라이며 이에 덧붙여 필리핀의 경우 싼 어학연수 및 유학 대상국으로 급부상하였다. 이들 나라의 경우도 외국인의 관광과 어학연수등을 외화벌이의 주수입원으로 삼으면서 성매매는 관광에 부수되는 일로 치부되고 있다.

태국의 경우 유럽, 호주, 뉴질란드, 일본, 중국 등 다양한 나라로부터 관광객이 유입되고 있으나 한국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주요한 성매수자로 등장하였다. 필리핀의 경우 더욱 심각한데, 필리핀으로 입국하고 있는 외국인 수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하면서 한국인의 필리핀 내에서의 범법 행위가 사회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외화 획득을 위해 한국인의 필리핀 입국을 증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지만 필리핀 내에 한국인이 늘어나면서 성매수로 인해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실추되고 있다.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이 강력하게 시행되면서 필리핀으로 성매매관광이 늘어나고 있는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태국과 필리핀의 성매매여성들은 절대 다수가 가난 때문에 성매매를 한다. 따라서 이들은 성매매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만 결코 성매매를 벗어날 수 있을 만큼 돈을 벌거나 다른 생계대책을 세울 수 있지 못하다. 태국은 가난한 농촌지역에는 딸이 도시로 나가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어 생계유지를 하는 것은 흔한 일상적인 일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매매여성들이 가족의 지지도 받고 있는 경우도 많으며 성매매여성이 농촌으로부터 공급이 넘쳐나기 때문에 성매매를 포주가 강제하지는 않고 자신이 원하면 그만둘 수 있으며 정부의 대대적인 캠페인으로 콘돔 사용이 비교적 철저하게 시행되고 건강 검진도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의 성매매여성들의 상황은 태국 보다 더욱 열악한데, 10대 초반의 어린 소녀들이 인신매매를 통한 유입이 자행되고 있고 성매매 1회의 비용도 적고, 착취가 심하여 거의 돈을 벌 수 없다 특히 집결지의 경우 포주는 감금과 폭력 등의 강제적이고 하루 10회까지의 빈번한 성매매를 강요하고 방값, 식비, 의상비등에서 폭리를 취하여 돈을 버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콘돔 사용이 철저하지 못해 HIV 바이러스나 에이즈 등의 성관계를 통해 전염되는 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며, 대다수가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고 낙태가 용이하지 않아 낳아서 기르는 책임을 떠맡고 있다.

태국의 경우 단체관광객의 성매매는 빈번하고 최근에 들어 홀로 지속적으로 방문하거나 배낭여행객에 의한 성매매가 자행되고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마약 복용도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의 경우 찬값(우리나라 돈 1만원)으로도 생매매가 가능한데, 골프 등 단체관광객은 물론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위해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는 젊은 학생들이 현지처를 두거나 일회성 성매매를 하고 있다. 이는 젊은 학생들조차도 성매매 문화에 적극 가담하고 있어 성매매에 관한 관행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 세계화를 대비하여 유학과 어학연수를 위해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는 학생들의 성매매는 세계화의 또 다른 추한 면을 드러내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남성 성매수자들은 현지에서 여러 측면에서 좋지 않은 평판을 얻고 있었다. 성매매여성들은 한결같이 우리나라 남성들이 콘돔 사용을 꺼린다는 것을 불평하였다. 성매매여성들 중에서 성병 감염을 앓고 있는 여성들도 있어 성병 감염을 위험을 안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남성 성매수자들은 많은 경우 성매매여성들을 무시하고 이들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하며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성행위를 요구하며 돈에 인색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었다. 우리나라 남성들은 이 두 나라에서 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물론 미성년자는 상대로 하는 성매매를 자행하여 성매매 주요 가해국가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 남성들은 ‘추한 한국인’으로 나라 이미지를 더럽히고 있다.

우리나라 남성들이 다른 나라 여성들 특히 미성년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지 않도록 정부와 NGO는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들에 의한 나라의 이미지 실추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또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2000년도 ‘청소년 성보호법’,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성매수자 처벌 및 재범방지 교육을 강화하고,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여성 보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매매 처벌에 관해서 분야별로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처벌 정도도 강화되었다. 그러나 특히 우리나라 사법당국은 국외에서 법 집행 의지가 미미하다. 앞으로 내국인의 국외 성매매에 대해서 법 조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정부는 경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해외성매매방지 전담팀>을 구성하고 운영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에서의 추한 한국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외교부는 국가이미지발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와 협조 하에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국민 전광판 홍보, 여행업계 건전해외여행 캠페인, 형사사법 공조 조약 우선 체결, 주변국 경찰과 네트워크 강화, 재외공관 경찰인력 점진적 증원, 해외 성매매 알선 여행사 행정제재, 인터폴 협조 하 국제성범죄 수사 강화, 여행국 추방자 제재, 일정기간 여권발급 제한 방안 강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일정 기간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여 우리나라 남성들의 해외성매매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태국, 중국 등 12개 나라와 <형사서법공조조약>을 맺고 있고 이를 통해 해외 관계인으로부터의 증언, 진술, 증거 채취를 위한 상대국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나, 조약 자체가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조약내용 상에도 증거를 제공하는 자가 증거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성매매와 관련하여 실제적으로 협조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이금형, 2005:83, 해외성매매 방지 치안 대책, 청소년을 내일여성센터)

일본 경찰은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경찰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이들 나라에서의 자국민의 미성년성매매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¹⁹⁾ 우리나라 경찰도 보다 적극적인 법 집행을 위해 우리나라 국민의 방문과 체류가 증대되고 있는 국가들의 경찰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이들의 협조를 얻어야 할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관광회사들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한국일반여행업협회와 여행사 대표와 함께 해외관광성매매 방지를 위한 일회성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공무원은 작년 청소년을내일여성센터가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여행사의 해외여성 상품에는 이와 같은 불건전한 경우는 없고 옵션으로 행해질 개연성만 인정하였다(노일식, 2005:72, 해외성매매 여행방지,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19) 일본 경찰은 매년 이들 나라의 경찰과 협조 체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11월 27일에서 30일까지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그러나 단체 관광에서 국내 관광회사가 현지 관광회사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아 현지 가이드들이 여행비용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해 가이드들로 하여금 관광객에게 성매매를하도록 권장하는 현재 관광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해야 할 것이다.

관광회사가 Code of Conduct를 체결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해외 아동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 추진에서 이에 관해서 고객들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NGO는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함께 협조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NGO가 펼치는 성매매 없는 여행²⁰⁾ 캠페인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위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지원 과정에서 정부와 NGO는 협력 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와 NGO 간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첫째, 여행사와 유학 알선 업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외에서 성매수,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수도 범죄이며 단속된다는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이에 관한 홍보책자를 제작 여행사와 유학 알선 업체를 통해 배포하고, 특히 어학연수와 유학생의 경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비행기표와 함께 홍보책자를 전달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들에게 현지 실태를 알리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공항과 비행기 내에서 미성년자 성매매에 관한 홍보물을 비치하고 이에 관한 비디오를 제작, 지속적으로 상영해야 한다. 이미 에어 프랑스는 ECPAT International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기내에서 이에 관한 비디오를 상영하고 있다.

현지 성매매여성들을 위한 자활지원을 시작해야 한다. 태국의 성매매여성들은 어떠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ECPAT International 본부가 방콕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현지 NGO의 활동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를 여성들을 위한 상담과 자신의 미래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교육 사업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필리핀의 경우 ECPAT 필리핀 등 다양한 NGO가 청소년을 비롯한 성매매여성들을 위한 지원활동을 스페인, 독일 등의 지원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들 NGO가 보다 실효성 있는 자활 지원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20) 일본 ECPAT는 이미 'Stop Japan' 캠페인을 하고 있고 타이완ECPAT는 'Good Traveller'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해야 하며 한국 남성에 의한 포르노 속에서 성 착취 당한 71명의 미성년 피해자들을 위해 지원 사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남성들의 해외 성매매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이며 보다 광범위하게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실시한 조사는 이러한 문제에 관한 첫 번째 시도로 시행착오를 적지 않게 겪었고 미비한 점이 많다. 태국의 경우 조사가 단시일 내에 이루어졌고 현지 가이드로부터 여러 면에서 도움을 받았지만 이는 또한 한계가 될 가능성도 크다. 태국의 경우 Pilot 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필리핀의 경우 현지 NGO의 도움을 받았으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였고 현지 조사 역량이 부족한 점 등으로 충분한 자료를 얻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밑거름으로 하여 심층적인 조사가 이어져야 할 것이며, 이들 나라 외의 국가들에 대한 연구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사 연구와 활동을 위해 국내·외 관련 NGO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을 유지해야 한다. 현지의 도움 없이는 조사 연구와 활동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국제적인 네트워크 강화는 필수적이다. 태국과 필리핀은 물론이고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몽고, 우즈베키스탄 등의 구 소련 지역과도 유대관계를 확대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현지 NGO와의 긴밀한 협조 구축을 바탕으로 조사 연구에 뒤이어 성매매 미성년 여성과 여성들을 성매매 피해자로 인식하고 이들을 위한 활동이 이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 (사)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ECPAT Korea, 2005, 한국 남성의 아동·청소년 대상 해외 성매매 관광 실태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자료집.
- 카니타슈 왓차라파(2004) “한국인 해외관광의 현황과 특징에 대한 조사연구-태국관광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공약이행점검회의 참가 보고서(2004.11.8-10, 태국 방콕), 2004.12, 청소년보호위원회
- 한국관광공사 www.knto.or.kr
- 태국대사관 www.thaiembassy.or.kr
- 태국관광청 www.visitthailand.or.kr
- 필리핀대사관 www.mofat.go.kr
- 필리핀관광청 www.wowphilippines.or.kr
- “현대판 노예제-태국의 아동/인신매매, 성매매를 중심으로”, 김주희(서울여대),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ijunodong.prok.org/) 다른나라 문화 엿보기 게시판
- 네이버 백과사전 “필리핀” 경제 및 사회
- 네이버 블로그 정선아리랑(blog.naver.com/ararikim) “내국인 해외여행 동향”
- 코리아타임스 타임스미디어(www.timesmedia.co.kr) 커뮤니티 최신뉴스 “놀러 배우러 아예 살려한국인 週 만명꼴 필리핀 몰려간다”
- 조인스 중앙일보(www.joins.com) 핫이슈·토론 디지털국회 경제·과기마당 “1조원 의 해외 유출과 28만 여개 일자리 손실” 2006.5.27 일평경제연구소 소장 정 상
- 주간한국(weekly.hankooki.com) [이색지대르포] 점점 번져가는 해외 섹스관광, 2005.8 조재진 자유기고가
- 조선닷컴(www.chosun.com) [비행기 타는 성매매(하)] 기생관광, 2005. 7 오윤희 기자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Break News(www.breaknews.com) [단독확인]관광사이트 위장 성매매알선?, 2006.9 소미연 기자
- http://www.startour.pe.kr/Information/knowledge/sex_street.htm
- ECPAT International (www.ecpat.net/eng/index.asp) CSEC-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CSEC Database "Thailand", "Philippines"
- 글로벌학교(nc.haja.net) Message Board 자유게시판 “읽을거리 4 : 비싼 약값 때문에 환자들이 죽어간다” 2006.8
- 제1차 세계 아동 성착취 추방 대회-스웨덴 스톡홀름(1996), 한토마 (hantoma.hani.co.kr) 주제별토론 지난토론방 문화 세상은 요지경 “어린이 성추행 - 세계적인 문제”
- KBS 1TV, “특파원 현장보고 세계를 가다” 2006년 3월 17일자 방송
- 최강세계여행정보(<http://www.eyeofeagle.co.kr>) “파타야”, “마닐라”, “세부”
Brown, Louise, 2000, Sex Slaves: the trafficking of women in Asia, Virago Press.
Phonpaicht, Pasuk, 1982, From Peasant girls to Bangkok Masseuses, IL0 Office.
- 올트먼, 데니스, 2006, 글로벌 섹스, 섹스의 세계화, 침실의 세계화, 이소출판사.

카멜리타 I. 펠론(필리핀 사회복지사)

* 스크립트 (파워포인트 발표용)

피해자 신상정보 및 인신밀매단 활동실태

□ 필리핀 세부 사례(슬라이드 1번)

□ 피해자 신상정보 (슬라이드 2번)

- 연령

모집된 여성의 연령은 최연소 12세에서부터 최고 30세에 이릅니다. 성매매 피해자가 어릴수록 수입이 많고 협박하기에도 수월해서 인신밀매단은 어린 청소년들을 선호합니다.

- 경제력

피해자의 가족들은 빈곤선 아래의 빈농들입니다. 그 부모들은 도저히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 교육

대부분의 피해자는 초등교육 또는 중등교육에서 학업을 그칩니다. 그 부모들이 더 이상 학교에 보내줄 여력이 없기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고 농장일을 거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아예 학교를 다녀보지도 못하기도 합니다. 일차적인 문제는 공부가 아니라, 하루 3끼니를 구하기 위해 자기 집이나 남의 집 농장일을 거드는 것입니다.

- 걸모습

모집책과 함께 집을 나서는 소녀들의 모습은 농촌의 여느 젊은 여성과 같이

심플한 캐쥬얼 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매춘업소에 도착하면 매춘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선정적인 의상으로 갈아입고 화장을 합니다. 의상구입비는 결국 빚으로 쌓입니다.

- 가정환경

대부분의 여성은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가족 내 성착취를 당한 희생자입니다. 일부는 부모의 동거인으로부터 학대를 받기도 합니다.

□ 인신밀매단 신상정보 (슬라이드 3, 4번)

(슬라이드 3번)

인신밀매업자/모집책은 가족의 친구, 이웃, 친척 또는 평소 믿고 따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는 완전히 탈바꿈한 화려한 모습으로 고향마을을 찾아온 술집이나 매춘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소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부러워하는 이웃이나 친척들한테 함께 도시로 가서 행운을 시험해보자고 유혹하기는 쉬운 일입니다.

(슬라이드 4번)

이 마을소녀들은 5~10명씩 모집책을 따라 버스를 타고 마을을 떠난 후 도시로 향하는 배를 탑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인신밀매업자/모집책에게로 넘겨집니다. 항구에 도착하면 다시 다른 인신밀매업자/모집책을 따라 매춘업소로 가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 인신밀매업자를 거치는 것은 혹시 체포될 경우에 대비한 안전조치입니다. 소녀들은 그들을 데려온 모든 모집책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고, 주소도 알지 못합니다. 각 모집책은 모집한 소녀 1인당 500페소 또는 그 이상의 수당을 받습니다.

인신밀매단은 젊은 여성들이 혼혹되기 쉬운 친절한 모습에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시작해서 아주 복잡한 구조로 매춘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춘업자들은 지역적,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 기착지, 도시 변두리 등에 모집책을 두고 호출이 있을 때마다 소녀들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목표로 정한 소녀들을 혼혹하고 위협하기 위해 회유

와 협박을 병행합니다. 거대 매춘조직은 100~250명의 소녀들을 데리고 있는 매춘업소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 어떻게 밀매되는가? 인신밀매단의 활동방식 (슬라이드 5번)

인신밀매단은 목표로 정한 소녀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 다음과 같은 방법도 있습니다;

- ◆ “달콤한 말”로 현혹하기 - 도시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알선해준다고 소녀와 부모에게 약속합니다.
- ◆ 소녀의 부모에게 선금을 지불하기 - 만약 소녀가 도시에 도착하지 않으면 선금은 소녀의 빚으로 남게 됩니다.
- ◆ 마을에서 5~10씩 단체로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고, 도시로 향하는 배를 타기 위해 항구로 이동합니다.
- ◆ 인신밀매단이 다바오(Davao)와 같이 모집지역으로 정한 곳은 악다오(Agdao)와 불르발드(Boulevard)입니다. 이곳 소녀의 대부분은 대형 매춘업소에 있습니다.
- ◆ 외국인을 포함한 인신밀매단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 ❖ 우편주문 신부 - 마을에서 외국인과 결혼한 이웃이 있을 경우 남자의 친구인 또 다른 외국인과 짹을 이뤄 결혼을 합니다. 이는 딸이 외국인과 결혼하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소녀와 부모들의 집단의식에 기인하기도 합니다.
 - ❖ 퇴폐관광을 원하는 외국인은 젊은 여성들과 “즐길 수 있는”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점의 커피숍을 배회합니다. 일부는 노트북과 명함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컴퓨터로 소녀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관심을 끕니다. 소녀가 관심을 나타내면 명함에 적힌 주소지에서 만납니다.
 - ❖ 또 다른 방법은 인터넷과 포르노사진을 포함한 화상채팅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 인신밀매역학 (슬라이드 6번)

인신밀매는 불법적/조직범죄적 사업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온 고수익 사업니다. 하지만, 인신밀매단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은 좀처럼 접하지 못합니다. 체포되더라도 즉시 석방됩니다. 소녀의 인생과 미래를 파괴하는 파렴치한 인신밀매업자는 윤임과 식비와 선금으로 고작 1천 폐소를 투자해서 각 소녀당 1만에서 10만 폐소를 벌어들입니다. 일부 외국에서는 성경험이 없는 소녀들에 대해 1인당 5만에서 10만 폐소를 지불하겠다고도 합니다. 일부 남성은 “숏처녀와 성관계를 가지면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고 정력이 강화된다”는 미신을 믿고 있습니다. 카마가얀(Kamagayan)의 소규모 매춘업소에서는 경찰관들이 소녀의 처녀성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소녀를 이용하고 팔고, 다시 이용하고 다시 팔 수 있는 이 사업은 크게 남는 사업입니다. 소진되는 마약이나 식품과는 다른 사업입니다. 한 곳에서 이용된 다음 신선한 새 상품으로 보이기 위해 다른 장소로 옮겨집니다.

인신밀매된 소녀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다음과 같이 성적착취를 당했다;

□ 성매매 소녀 (슬라이드 7번)

소녀들은 매춘업소에서 감시받고 있습니다. 대형 매춘업소는 100~250명의 소녀들을 데리고 있기도 합니다. 포주의 대부분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운터에서 속칭 “숏타임”에 4천 폐소를 받습니다. 그중 5백 폐소만 소녀에게 돌아가고, 3천5백 폐소는 매춘업소의 업주 또는 관리인이 가져갑니다.

□ (슬라이드 8번)

카마가얀과 같은 작은 매춘업소에서는 “숏타임”당 5백 폐소를 받아, 그중 3백 폐소는 기동서방이, 1백 폐소는 업주가, 그리고 나머지 100 폐소를 소녀가 가집니다. 보다 많은 수입을 위해 하룻밤에 10명 이상의 남성을 상대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비좁은 방에서 여럿이 생활하며, 하루에 1끼 또는 2

끼만 먹고, 그나마 수입이 전혀 없으면 밥도 짖어야 합니다. 일부는 밤새 졸지 않고 기운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마약을 강요받기도 합니다. 돈을 직접 가질 수도 없습니다. 수입은 모두 관리인이 보관하며, 수입은 월 또는 년 단위로 나눕니다.

□ 섹시 댄서 (슬라이드 9번)

소녀들은 밤새 KTV바에서 비키니 차림이나 나체로 춤을 춥니다. 하룻밤에 1백~3백 폐소를 받습니다. 테이블에서 손님들을 접대하고, 남성들이 사주는 술을 마시는 대가로 업주로부터 커미션을 받습니다. “숏타임”당 1천~5천 폐소를 받는 “바 벌금”도 있습니다. “바 벌금”은 “숏타임”을 위해 남성과 호텔로 가는 소녀에 대해 카운터에서 받는 요금입니다. 소녀는 한 건당 2백5십~5백 폐소를 받습니다. 손님들로부터 팁으로 받는 기타 수입도 있으나, 다른 바의 업주들은 팁도 가져갑니다.

□ 접대부 (슬라이드 10번)

KTV에는 선정적인 옷차림을 한 젊은 여성과 소녀들이 서빙을 하거나 접대 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손님들이 사주는 술에 대한 커미션입니다. 3백 폐소의 와인 1잔당 4십 폐소의 커미션을 받습니다. 신참이 댄서가 되기 전에 거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일부는 수입을 늘리기 위해 비밀리에 “바 벌금”을 수락하기도 합니다. 그들중 다수가 미혼모이거나 무대 위에서 옷을 벗을 정도로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약간 나이가 많은 여성입니다. 부양해야 할 자식과 어린 동생들이 있는 그들에게는 “돈을 쉽게 버는” 이 일 말고는 달리 일할 곳이 없습니다.

□ 무소속 매춘여성 (슬라이드 11번)

과거 매춘업소에 있다 탈출한 여성들이 스스로 매춘을 하는 것입니다. 콜론(Colon), 레온 킬랏(Leon Kilat), 산시앙코(Sansiangco) 등 번화가, 버스터미널, 광장 등 번화한 곳에서 상대 남성을 찾습니다. 연령대는 최연소 12세부터 최고 30세를 넘기도 합니다. 개인위생이나 보건검진에는 무심해서 대부분이 성병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싸구려 간이 숙박소 요금을 포함해서 5십~3백 폐소를 받습니다. 간혹 메탐페타민(필로폰) 때문에 매춘을 하기도 합니다.

그중 일부는 상대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매춘을 하는 동안 간이 숙박소 문밖에서 기다리는 기둥서방과 동거하기도 합니다.

□ 아카양 발코 / 항구 일대의 소녀 (슬라이드 12번)

현지의 또는 외국의 선원이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매춘을 하는 12~30세의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녀들은 작은 보트를 타고 나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국제선을 만나 배에 올라타서 선원들을 대상으로 매춘을 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특정 선박의 단골손님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현지의 선박을 타고 목적지까지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 소녀들은 의사의 검진을 받는 등의 보건에 대한 자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항구의 여성들과 매춘을 한 상대 남성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성병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 콜걸/동반매춘 (슬라이드 13번)

전화 또는 쪽지로 연락하여 매춘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상대가 유명한 기업인이거나 정치인인 경우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 이루어집니다. 특급호텔에서 각종 사업회의가 개최될 때 패키지의 일부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대가로 많은 돈을 받으며, 거래를 담당하는 매니저를 두고 있기도 합니다.

□ (슬라이드 14번)

일간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이제 도시에서는 매춘남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게이바 부근에 있습니다.

□ 쇼핑몰걸 (슬라이드 15번)

대형 쇼핑몰과 24시간 개점 주유소 편의점에서 쇼핑객을 가장하여 손님을 찾아다닙니다. 대형 쇼핑몰의 커피숍, 벤치 등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대상을 물색하며 배회합니다. 화대는 협상능력과 매춘여성의 외모에 따라 다릅니다.

□ 택시걸 (슬라이드 16번)

후엔테 오스메나(Fuente Osmena), 플라자 인디펜덴시아(Plaza Independencia), 칼본(Carbon) 지역, 쇼핑몰 택시정류소 등을 배회하는 소녀의 연령은 8~12세입니다. 이것이 거리매춘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소녀들은 택시기사 또는 승객들을 상대로 “직업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화대로 20~50 폐소를 받습니다. 그녀들은 이 일을 아주 단순한 일이라 놀이로 생각합니다. 소녀들은 불우한 가정을 가출한 거리의 아이들입니다. 마닐라(Manila)와 기타 지역의 인신 밀매단의 유혹에 약한 피해자들입니다.

□ 인신밀매 피해소녀 표본 도표 (슬라이드 16, 17, 18번)

매춘업소와 KTV바에서 일하고 있는 소녀들을 접촉하며 수집한 자료입니다. 소녀중에는 다바오 출신이 가장 많았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아드가오, 블르바르, 다바오 출신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지 표본집단에 불과하며, 세부 지역 전체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가장 중요한 정보원인 피해자 자신들이 인신밀매 실태에 관한 실화를 밝힌 것이라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막대 그래프는 출신지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 (슬라이드 18번)

곡선그래프는 미성년자의 수와 18세 이상 여성의 수의 나타내는 것입니다.

□ (슬라이드 19번)

다른 그래프는 매춘업소에서 댄서와 접대부로 일하고 있는 소녀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총 112명의 소녀를 인터뷰한 결과입니다.

예측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 (슬라이드 20번)

21세의 메리(가명)는 16세이던 5년 전 다바오에서 인신밀매되었습니다. 세부와 라푸 라푸 시티(Lapu Lapu City)에서 여러 매춘업소와 바를 전전했습니다. 에이즈에 양성반응을 보인 후 얼마 전 폐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녀는 무일푼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유족들은 관 값을 지불할 능력도, 시신을 고향으로 운구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것은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3살 바기 아들과 생후 2개월 된 아들뿐입니다. 메리의 이야기는 다른 피해자 또는 미래의 피해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일입니다.

□ (슬라이드 21번)

감사합니다!!!

발표 : 이시도라 보호센터 까멜리타 이고트 펠론(Carmelita Igot Pelone)

토 론 문

- ❖ 김영숙(국회의원:한나라당) 87
- ❖ 유승희(국회의원:열린우리당) 92
- ❖ 전혁희(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보호단장) ... 97

김 영 숙(국회의원 : 한나라당)

I. 해외 원정 성매매 확산 배경

국민 소득의 증대와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내여행 경비보다 저렴한 가격의 해외여행상품이 쏟아지고 있음. 다양한 관광상품과 국민의식변화로 인해 해외여행 기회가 늘어나면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해외여행 중 현지인과의 성매매로 인해 국가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는 현실임.

<2006년 1-6월 목적별·행선지별 내국인 출국 현황>

순위	행선지	계	관광	상용	방문·시찰	공용	회의·참가	기타
1	중국	1,466,236	811,564	447,965	140,170	1,422	3,316	61,799
2	일본	1,003,587	653,405	169,249	108,215	1,502	7,018	64,198
3	태국	443,604	384,494	23,157	28,064	218	971	6,700
4	미국	339,238	134,794	70,224	72,179	2,596	7,856	51,589
5	필리핀	258,832	207,854	15,542	22,859	258	419	11,900
6	홍콩	185,833	116,410	48,648	15,175	180	794	4,626
7	베트남	164,428	121,155	25,156	14,793	317	377	2,630
8	싱가포르	119,088	82,395	19,055	11,757	220	751	4,910
9	호주	99,191	65,994	5,419	10,894	228	475	16,181

<출처> 한국관광공사 관광통계 자료 참조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목적별·행선지별 내국인 출국 현황 중 관광을 목적으로 태국과 필리핀을 방문한 숫자가 각각 38만명과 21만명에 달해 약 60만명에 육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중국 81만명, 일본 65만명에 이어 3번째, 4번째로 많은 숫자로 태국과 필리핀이 한국민들의 주요 관광국임을 알 수 있음.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에서는 성매수자의 신원공개, 집결지 해체, 종사원 자활사업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시행하고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유사 성행위업소가 생겨나고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성행하는가 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거짓말로 속여 국내 성매매업소 종사자를 해외로 송출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현실임. 국내 성매매 단속으로 인한 풍선효과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 해외 관광객의 성매수 실태를 태국과 필리핀의 예로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자리로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II. 태국·필리핀 성매매 실태 및 문제점

현지실태 조사를 통해 작성한 발제문을 보면 한국인의 해외 성매매는 과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정도의 심각한 수준임. 국가별 조사 지역 및 방법, 성매수 가격 등 성매수자를 위한 가이드 북 처럼 세세한 부분까지 기술한 내용은 매우 충격적으로 반응됨. 본 의원은 이러한 실상에 대해 향후 국가의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파헤쳐 대처해야 한다고 봄. 발제문에서 느낀 2개국의 공통점을 재조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1. 태국·필리핀의 경제 구조

태국과 필리핀은 모두 쌀, 옥수수, 콩 등을 재배하는 1차 산업 중심의 전통적인 농업국가임. 비옥한 국토와 더불어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섬들은 관광산업의 훌륭한 자원으로서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음. 이로 인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2차 산업보다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발전하게 되었음. 도시와 지방의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빈곤한 농촌의 젊은이들이 도시로 관광지로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몰려들고 있음.

2. 태국과 필리핀의 관광산업 진흥 정책, 성매매의 접근 용이, 저렴한 여행 가격

태국과 필리핀은 관광산업을 외화획득의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음. 농촌의 저학력 젊은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밤이면 길거리와 유흥가를 전전하게 되고 관광객들과의 성매매를 통해 많은 돈을 벌려고 함.

성매매 여성의 가정환경을 살펴보면 부모가 생존해 있음에도 가난으로 인해 성매매에 나서는 경우, 조부모와 함께 살거나 고아인 경우,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경우도 있었음.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경우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어머니와 친척에서 아이를 맡기고 있으며 위 모든 경우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성매매에 나서는 실정임.

바디 마사지업소, 가라오케, 바, 길거리, 집결지 등에서 쉽게 성매매 여성들을 접할 수 있으며, 성매매 여성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관계로 성매매 비용이 낮아 이들은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어 성 산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경찰 역시 성매매를 단속하고도 업주가 성매매종사자가 아닌 일반종업원이라고 하면 처벌하지 않는 등의 정부의 미온적 대처 역시 성매매를 근절시키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점임.

여행사들의 과다경쟁으로 인해 저렴한 관광 상품이 볼 물처럼 쏟아지고 이는 여행사의 경영수지가 악화로 이어져 가이드는 관광객에게 옵션 상품으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할 수밖에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있음.

3. 국가 신인도 추락

최근 유엔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에 이어 동남아시아 전역에 AIDS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함. 그러나 한국 남성들은 콘돔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매우 공격적이라고 함. 성매매 여성에게 같이 마약을 하도록 강권한다거나,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요구하고, 성노예처럼 부린다고 함. 더욱 심각한 점은 현지 여성과의 성매매로 인한 새로운 코시안의 탄생임. 아버지를 모르는 한국계 아이가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 생명과 여성에게 또 다른 죄악을 범하고 있고 한국인의 인식을 추락시키고 있음.

나이 든 사람의 경우 어린 소녀와 성관계를 하면 회춘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미성년을 성매수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음. 일반관광객뿐 아니라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어학연수·유학생들도 주요 성매수자임은 심각한 도덕성의 문제이며 이들 중 일부는 유학기간동안 동거를 하는 경우도 있었음.

우리는 아시아의 중심에서 각 기업의 우수 상품들과 드라마 대장금, 인기 배우 배용준, 인기가수 비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연예인들이 한류 열풍을 이끌고 있는 지금 일부 무지한 사람들로 인해 국가 위상이 손상될까 우려됨.

III. 해외 원정 성매매 근절방안

일부 국가에서는 하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 성매매는 국가 위상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를 단속·규제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임. 대안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고 보상금 제도 확대, 여권법 또는 출입국관리법 개정과 더불어 관광업체 또는 업체와 계약한 가이드가 성매매를 알선했을 경우 해당 업체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는 관광진흥법의 개정 등도 관련부처와 협의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일부에서는 법만을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기본권 침해의 요소가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만 이는 한국 국민들의 그릇된 성의식 구조 변화에 일익을 할 것이라는 데는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임. 더 나아가 한국 국민들에게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인식을 확산 시키는 한편 국내기업 및 시민단체와 협의하여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고 한국민의 우수성에 역점을 두고 캠페인, 사회봉사활동 등의 대안도 마련해야 할 시점임.

참 고 자 료

1. 신고 보상금 제도 확대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조직폭력 또는 인신매매 조직과 관련된 성매매범죄 신고에 한해서만 보상금 지급을 인정하고 있으나 성매매와 관련된 모든 행위의 신고(국내외 성매매 관련자, 알선 업체 등)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보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야 하며 현지 사법당국과의 연계를 통해 보상금 지급의 실효성을 확보해야함.

2. 여권법 또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해외 성매매에 대하여는 해외 성매매 방지 전담팀을 정부합동(외교, 법무, 행자, 여성 등)으로 운영하고, 출입국 및 해외범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 수사력을 강화하며, 해외성구매자의 여권발급·출입국이 제한되도록 여권법 또는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함.

3. 관광진흥법 개정

해외여행시 가이드의 안내를 통해 성매매가 알선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해외성구매자가 가이드를 통해 알선을 받았을 경우 가이드를 채용한 관광업체 도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유승희(국회의원 : 열린우리당)

얼마 전 성매매특별법 시행 2주년을 맞이하였다. 이에 정부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향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일부 보완대책으로 법 개정 및 제정을 검토 중이다. 특별법 시행 이후 경제적 악영향, 풍선효과를 운운하며 법의 실효성 논란 또한 없지 않았지만,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의식이 확산되고 성매매 여성의 자활 사례가 측정되는 등 성과 또한 적지 않았다.

지금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법망을 피한 음성적 성매매, 해외성매매, 성매매관광과 같은 제거되지 않고 있는 틈새를 법과 제도의 보완 및 강력한 정책추진을 통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둬들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사)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ECPAT Korea)가 시행한 「태국과 필리핀을 중심으로 한국인에 의한 성매매관광 실태조사」 결과발표는 적절한 시점에 나왔으며 이후 정책에 이용될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보고서의 결과는 놀라웠는데, 성매수를 하는 한국남성들은 태국의 경우 단체관광객과 배낭족 등 일시적인 여행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필리핀의 경우는 골프 및 일반관광객들은 물론 어학연수와 유학 온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남학생들도 주요 성매수자라는 것이다. 이는 필리핀에 인기 있는 영어연수지 한 곳에만 2천명의 한국 유학생들이 있다고 YTN이 보도한 것처럼 최근 2년간 한국인의 유학생이 많이 늘어난 탓인데, 이렇듯 중장년의 남성관광객뿐만 아니라 어린 유학생이나 연수생들 그리고 한국 대학생들의 동성애 성매매와 같은 행태는 이미 성매매에 대한 기성세대의 잘못된 성의식이 다음 세대에 답습되어 대물림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필리핀의 사정은 흡사 우리나라 60년대를 보는 듯했다. 외화획득과 미군 주둔이라는 목표를 위해 성산업을 조장하고 방치했던 그 때의 한국처

럼 필리핀은 관광산업을 통한 외화획득을 위해 성산업을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희생을 통해 가족이 지탱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몸을 상품화해서 이를 바탕으로 국가 경제가 지탱되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 되는 것을 같은 경험을 했던 나라의 여성으로 책임감도 느껴졌다.

사실 아시아 지역에서 성구매자로서 우리나라 남성들에 의한 성매매관광 문제가 국제 사회에서 문제시되기 시작한 것이 한두 해의 일은 아니다. 문제는 해외여행이 늘고 해외유학, 연수 등이 늘고 있어 그 만큼 해외에서의 성매매문제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남성에 의한 여행국가의 현지인, 특히 미성년자에 대해 자행되는 성착취는 범죄로 인식되고 근절되어야 한다.

또한 보고서는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이 발효되고 난 이후에 필리핀에서 한국 남성에 의한 성매수가 현저히 늘어났을 개연성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 국내에서 성매매가 불법으로 더 강력하게 단속되니 해외원정성매매가 늘어나 한국망신 시킨다고 언론은 연일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늘어 해외 원정 성구매자수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내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늘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미성년자와 여성들의 인권을 한국 남성이 유린하고 있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비록 각 나라의 성매매 관련 정책에 차이가 있고 정부차원에서 외국당국과 수사협조체계를 가지는 것이 현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대안마련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의 다양한 성매매근절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는 것 또한 잘못된 성인식을 바로잡아 해외원정성매매와 같은 사례가 줄어들 것이다.

우선 이미 시행했거나 실행 가능한 정책들을 살펴보면 첫째,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한국 사람이 성매매를 해도 우리나라 성매매특별법에 걸린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실례로 여성가족부는 독일월드컵 기간에 참관 관광객을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 협조을 요청하는 공문을 여행업

협회에 전달했다. 성매매에 대해 금지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독일 현지 여행사가 한국 국적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우리나라 법 적용에 있어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둘 다 채택하고 있어 한국국적의 관광객이 해외에서 성을 구매하거나 판매를 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됨을 밝히고 이를 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낸바 있다.

이렇게 성매매의 위법성을 여행사 차원에서도 관광객들에게 안내해주고 해외 성매매도 처벌받는다는 것을 홍보하도록 협조요청을 해야 한다. 현재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5월부터 공항, 지하철역, 기차역 등에 전광판 홍보를 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 11월에도 정책고객서비스(PCRM), 반상 회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여성가족부에서도 의식개선과 함께 관련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단속 등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둘째,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 관광사이트에 ‘여행의 동반자, 에스코트 걸’이라는 제목으로 ‘섹스관광’을 알선하는 소개란이 버젓이 올라있다고 한다. 해외 원정 성구매는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상습적인 성구매가 많다. 가이드를 따라 무리 지어 업소를 방문해 성매매를 하는 이러한 행태는 뿐만 아니라 할 것이다. 이렇듯 날로 증가하는 인터넷 매개의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성매매사이트의 신속한 시정과 폐쇄를 가능토록 하고,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내 인터넷 성매매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성매매방지법 시행2년 향후과제로 등장한 검·경합동 「해외성매매방지 전담팀」을 구성하여 현재 관리가 부족한 알선브로커 및 해외범죄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출·입국을 관리하며, 송출 알선조직을 모니터링해서 수사의 실효성을 갖추고 해외수사공제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스웨덴 남자가 태국에서 아동을 성매매한 사건이 있었는데, 태국 경찰이 이를 적발, 그 요청으로 스웨덴에서 처벌한 사건이 있었다. 이 case에서 태국 미성년 소녀 진술은 스웨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된 바가 있다.²¹⁾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판결의 대표사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관련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여성부,2004)

넷째, 현행 국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자는 여권의 발급이 제한(1~3년)되나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여권법 제8조)되고, 여권 반납(법11조)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여권법제11조(반납)에 제8조제3항 2호 규정(국위손상자)에 해당하는 자를 명시를 통해 성매매관련 범죄자를 여권의 발급제한에 포함하고, 여권의 반납사항에도 포함하여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여권법 관련규정 개정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성매매관련 범죄자들의 여권효력을 상실시킴으로서 해외로의 성구매, 성매매 목적의 출국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과 필리핀의 경우, 평균 15세에 성매매 시장으로 유입되고, 한국 성구매자는 나이 어린 여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므로 특히 한국 내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더욱더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웨덴의 경우 18세 이상 여성은 성구매 할 경우 성구매자처벌법만 적용되나, 그 이하의 연령일 경우에는 성구매자 처벌형량 외에 별도로 “페도필리아”에 부가된 형을 선고, 합산하여 형기를 복역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은 확산되었다 하지만 이를 넘어 스웨덴의 경우처럼 성매매=성폭력(성범죄)이라는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성매매 자체는 결국 권력관계를 이용한 인권침해이며 범죄행위다. 성매매의 대상이 한국 여성이던, 한국에 들어온 북유럽의 여성이던, 아시아의 미성년 여성이던 모두에게 해당되는 보편적 가치의 확산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국 내 성매매근절정책들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간구되어야 할 것이다. 성구매 초범 남성에게 재범방지 교육을 시키는 존스쿨(John School)의 제도 부담비를 미국(1천달러)과 캐나다(500달러) 등 외국처럼 성구매 남성 당사자에 부담시키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고 아울러 성매매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조직폭력 또는 인신매매와 관련된 성매매 범죄를 신고했을 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현행법을 손질해 성매매와 관련된 모든 행위의 신고에 대해 보상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돼야 한다.

또한 성매매 관련여행사를 조사, 감독하고, 해외 성매매 원정관련 자료들을 수집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며 관련 활동 NGO의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산은 정부의 정책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의식개선,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 및 노력이 조화될 때 비로소 진정한 선진국의 면모를 과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전 혁희(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보호단장)

『정부의 해외 아동·청소년성매매 대처방안』

정부는 아동·청소년 인권의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과 국무총리 주도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UN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빈곤아동 대책, 청소년 보호대책 등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이를 위한 제도 확립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성보호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등 관련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아동의 권리보호와 권익증진을 목표로 국가·사회 및 가족의 의무를 충실히 추진해 왔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업적 성(性)착취 및 각종 성범죄 행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상업적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0년 『청소년성보호법』을 제정·시행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최근 발생한 용산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 대구·인천지역의 연쇄 성폭행 사건의 발생을 계기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및 음란물 관련 행위의 강력한 예방을 위해 모든 성범죄자에 대해 국가가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정보 열람을 지역주민에게까지 허용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미신고시 제재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역사회 차원에서 아동·청소년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을 현재 추진 중이다.

해외 아동·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4조제2항에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성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정보의 공유, 범죄조사·연구, 국제사법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내국민이 대한민국 영역 외

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행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경우 외국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처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제공조에도 적극 협력을 지향하고 있다.

예를 들어 ECPAT International 국제회의에서 제기된 키리바시(Kiribati) 등 남태평양 도서국가에서의 국가에서의 한국선원에 의한 성매수 행위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ECPAT(End of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Korea(사단법인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와 공동으로 현지 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선박회사별 선원교육 실시 및 키리바시 현지국가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등 국제적으로 대책을 추진하였다.

기타 해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차원에서 인천국제항공공사를 통해 해외여행을 위해 출·입국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홍보물을 배포하였으며, ECPAT Korea에서 제작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방지관련 홍보영상물을 국제선(주로 동남아 선) 기내 및 인천국제공항 구내에서 상영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뿐만 아니라 후속사업으로 (사)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와 함께 키리바시(Kiribati)에서의 피해 청소년을 위한 의료지원 및 교육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06년 4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외교부 ‘추한한국인’ 종합대책은 “해외에서의 불법 활동이나 추태 통보 시 여권 상 제한을 가해 일정기간 출국규제 방안 추진 및 범죄인 인도조약체결 추진”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이미지 실추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책 모색이라고 볼 수 있다. 해외 원정 관광 성매매 확산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여행업 관련기관 및 한국일반여행업협회에 해외 성매매 관광방지 협조 요청 및 해외에서의 성매매 행위 및 알선의 국내법 처벌 및 현지법 적용에 의한 처벌 등을 2006년에 홍보한 바 있으며, 건전 여행캠페인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일선 관광통역지원센터 안내소와 43개 여행사에 배포하고 주한 외국인관광청협의회(ANTOR), 한국일반여행업협회, 여행사 대표들과 함께 해외여행 자율정화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해외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업계의 인식고취를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하여 왔으나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업계의 자율정화를 위한 결의문이 Code of conduct 차원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련업계 지원교육 등 후속 조치를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해외 성매매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는 『범죄인인도법』 제42조, 제44조에 근거하여 국제범죄인인도조약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 및 그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모든 국외범죄자는 송환이 가능하다.

발표문에서 제기된 것과 같은 필리핀에서의 유학생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내국민이 외국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죄를 범할 경우 외국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된 『성매매 특별법』 및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서도 처벌은 가능하다. 또한 해외 아동·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하여 『성매매특별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현재 법 적용 외에도 영토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내국인에 의한 외국에서의 성 관광행위 및 국제 인신매매 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제적 공조의 예로써 해외 성매매와 관련하여 현재 법무부 차원에서 한국-미국-캐나다-멕시코 등 4개국 간 국제인신매매방지대책회의 등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의 확대를 통해 국제적 공조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해외에서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외에 외국인산업연수생, 원어민 강사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의 외국인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내법적 강화 역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3년간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형이 확정된 6천여 명 가운데 외국인 범죄자의 수는 50명에 달한다.

<최근 3년간 아동·청소년대상 외국인 성범죄현황>

차수별 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계
7차	2	4	3	9
8차	1	2	8	11
9차	5	2	2	9
10차	-	2	2	4
11차	1	3	2	6
12차	-	4	7	11
계	9	17	24	50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 도입 초기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외국인 성범죄자의 국외추방여부에 대하여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여 왔다. 또한 UN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하여 외국인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에 대하여 당사국에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하여 외국인 범죄자의 신상공개 후 국내에서의 성범죄사실요지 및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당사국의 한국 주재 대사관에 통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아동성매매 및 음란물 제작·유포 등의 근본적 원인이 빈곤과 저개발(Under development)임을 감안하여, 사회개발, 빈곤감소를 위한 국제협력의 확대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문제도 개선될 것이다. 예를 들어 2006년 3월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시 발표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해당지역의 빈곤퇴치와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보건의료, 인적자원, 농업 및 수산업, IT기술 분야에 대한 대아프리카 개발 원조를 08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관광’이라는 명목으로 현지 아동·청소년 및 여성에게 자행된 상업적 성 착취(Commercial Sexual Expolitation)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범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국인에 의한 Sex Tourism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앞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해외에서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실태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조사 실시, 현지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국제적 협력 등 다각적인 모색을 해나가겠다.

